백두-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주체112(2023) 12
http://www.paekdu-hanna.com

백두 - 한나

주체112(2023) NO.346





광복지구상업중심

연건평 1만2700여㎡

운영방식: 자체봉사

여러개 층에 방대한 량의 상품진렬능력과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입고와 보관, 출고, 판매, 결제에 이르는 모든 봉상경영활동이 수자화, 정보화되여있다.

1층과 2층에는 공화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식료품과 공업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호평이 높은 <<대하>>, <<경흥>>, <<금컵>>상표를 가진 식료품들이 판매되고 가정주부들속에서 인기가 많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g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 - 한나
PAEKDU·HANNA

앞표지:

정일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총진군길에 불멸의 생명력을 주시며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가장 경건히 우러르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존엄높고 강대한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장구한 혁명령도사를 영웅적투쟁과 인류사적업적으로 수놓으시며 우리 당과 국가가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존엄과 번영의 굳건한 초석을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 변혁적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견인불발의 투지와 과감한 실천력을 백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새 승리를 반드시 성취할 엄숙한 맹세를 다짐하였다.

전략무력의 초강경보복의지와 절대적힘의 뚜렷한 과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 단행

전 년간 지속적으로 감행되여온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위협행위가 한해를 마감짓는 12월의 이 시각까지도 더욱 로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지난 12월 15일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무리들은 워싱톤에서 제2차 《핵협의그루빠》회의라는 핵전쟁모의판을 벌려놓고 또다시 우리의 《정권종말》을 줴쳐대며 공화국에 대한 《핵보복타격》을 실전화한 대규모련합훈련을 감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명년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전망을 세계앞에 분명한 실체로 떠올리고있는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는 우리 정부와 공화국무력의 강한 분노와 초강경보복의지를 더욱 발화시키고있다.

올해 1월부터 다달이 력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규모의 군사연습들을 확대강행하는것으로써 지역정세를 작심하고 긴장시켜온 적들이 벌써부터 새해에 들어 보다 더 구체화될 침략성이 짙은 전쟁연습계획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있는 현 상황은 결코 변할수 없는 본능적이며 체질적인 침략야망에 빠져있는 미국과 그 특등주구들의 악질적인 대결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며 더욱 엄중하게 번져질 조선반도안전환경전면파괴의 불길한 징조를 예언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핵전략폭격기와 초대형전략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때없이 들이밀어 조선반도지역을 말그대로 미핵전략자산들의 총집합기지로

만든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17일 핵동력잠수함 《미주리》호를 또다시 요란스럽게 광고해대며 조선반도에 전개시키는 극히 도발적인 행동으로써 우리 공화국과 지역의 안전환경을 보다 엄중히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지역을 제 집안팎처럼 들락거리며 정세악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그 졸개군사깡패무리들의 대결망동으로 하여 우리의 령토와 접경지역이 각일각 중대한 위험에 로출되고 우리 공화국의 안전리익이 심히 침해당하고있는 엄중한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변화된 행동 즉 더 공세적인 대응에로 넘어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적들의 대결적군사위협행위들을 강력한 행동적경고로써 무력화시킬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압도적대응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이 단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의 지휘관들이 발사훈련을 참관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은 공화국핵전쟁억제력의 림전태세를 검열하며 기동성과 전투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발사대기구역에서 발사준비를 진행한 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발사훈련계획을 청취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중앙지휘감시소에 오르시여 전략무기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대장이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반공화국핵대결야망에 헷뜬 적대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절대적의지와 힘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천지를 진감하는 거세찬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달고 대기를 썰며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를 4,41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전략무력의 신속반응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핵심타격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한번 검증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

천적인 파시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엄정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년내내 고취해온 무모한 반공화국군사대결광기를 이해의 마감까지 광란적으로 극대화하고있는 적대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고,워싱톤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여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흔들림없는 초강경대응의지와 절대적힘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위협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훈련을 참관하시고 공화국핵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끊임없는 국가방위력강화와 압도적인 대응은 나라의 존엄과 국권수호,국익사수를 위해 추호도 드릴수 없는 우리의 일관하고 절대불변한 혁명방침,투쟁기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전략무력은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전쟁위기도 단호히 평정할수 있게 더욱 정확하고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나갈것이다.(끝)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4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대회에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받은 어머니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값비싼 승리와 사변적인 성과들로 2023년을 마감하는 긍지스러운 시점에서 어머니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고 많은 세월 어머니들이 바쳐온 하많은 수고들을 온 나라가 다같이 헤아리며 한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드릴수 있게 된데 대하여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진 고난속에서 승리를 창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이 이 땅에 무수히 새겨가는 영광의 력사속에는 총을 쥔 군인도 있고 뛰여난 두뇌를 가진 과학자도 있으며 근로의 땀을 성실히 바쳐가는 로동자도 있고 근면한 농사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영예의 가장 높은 단상에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조선녀성들이,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곤난앞에서는 제일 강의하고 굳센 우리 어머니들이 언제나와 같이 애국의 길에 한생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본보기가 되여주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영웅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뿌리가 되여주었기에 우리 조국의 빛나는 오늘이 있을수 있었습니다.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로부터 이번 대회까지의 기간은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서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10여년과 일치하고있습니다.

결코 쉽게는 맞고 보낼수 없었던 그 날과 달들에는 조국앞에,자식들앞에 언제나 떳떳하기

위하여 고생을 락으로 삼고 난관을 딛고 넘어온 정의롭고 강직한 어머니들의 군상이 뚜렷이 새겨져있습니다.

우리 당이 하자고 하는 일은 하나부터 열,백까지 다 옳다고 믿고 온갖 애로와 고충을 묵묵히 견디여내는 어머니들이 있기에 한차례의 건국대업과도 같은 큰일들을 결심하고 내밀수 있었으며 남편과 자녀들의 훌륭한 방조자,충실한 밑거름이 되여준 어머니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시작한 모든 일들이 빛나는 결실에로 이어질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녀성들같으면 며칠도 못견딜 엄혹한 시련을 수십년이나 견디여내면서 한때의 변심도 없이 당정책을 지지해주고 아들딸들이 추켜든 신념의 총대를 억척같이 받쳐주었으며 온 나라에 애국운동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린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처럼 마음든든히 국력강화의 길을 멈춤없이,줄기차게 걸어올수 없었을것입니다.

지금 나날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서 새로운 건설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청년건설자들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탄원하여 끓는 피와 땀을 바쳐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소행에 접할 때에도 자식들의 훌륭한 선택을 지지해주고 기꺼이 떠밀어준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군 합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세월속에서 여러 자식을 낳아 자래우고 남편과 시부모를 돌보면서 궂은일,마른일 다 맡아하는 그 수고와 공적만으로도 어머니들은 마땅히 시대의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 많은 걱정과 일감들을 안고서도 남자들 못지 않게 혁명의 한 초소,사회주의건설의 한 부분을 당당히 맡아 지키고있으며 사려깊고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 사회의 청신함과 아름다움을 가꾸어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주요하게 내세운 농업전선과 경공업전선은 물론 미지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학연구기지들과 불꽃튀는 건설장들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서있었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애국공로자들의 전렬에서도 어머니들의 이름이 빛났으며 미덕,미풍으로 시련의 찬바람을 이겨내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조국의 억센 숨결에도 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어머니들이 간직한 보석같은 애국지심과 쉼없이 흘려온 고귀한 땀은 어려움도 고충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대가정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눈물속에서 빛을 뿌리고있으며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과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에 력력히 살아숨쉬고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였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것,공화국의 높은 권위와 강대성을 상징하는 그 모든것은 조선의 어머니들이 고결한 마음으로 엮어온 력사와 슬기롭고 근면한 노력으로 쌓아온 공적과 더불어 청사에 길이 남을것입니다.

언제나 늘 그러했지만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에 우리 당에 크나큰 힘이 되여주고 자손만대 살아갈 조국의 부강을 위해 티없이 순결하고 열렬한 애국충심을 바쳐가는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머니들!

한 나라,한 민족의 앞날은 어머니들의 사상정신적품격에 먼저 비끼게 되며 어머니들의 마음과 손에서부터 건설됩니다.

우리 혁명이 개척된지도 한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식을 남의 집 처마밑에 두고 조국해방성전에 나섰던 투사어머니들은 우리곁에 없고 아들과 딸,며느리까지 모두 혁명에 바친 어머니들 그리고 《하나는 전체를 위

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구호를 추켜들고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쓴 어머니들에 대하여서도 화면이나 글줄에서만 보아온 세대가 어머니로 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어머니들고유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그대로 이어지고있으며 미래에 바쳐지는 숭고한 삶의 력사는 계속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명줄과도 같이,피줄과도 같이 귀중한것입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이 굳세면 나라의 초석이 굳건하며 어머니들의 정신세계가 고결하면 혁명의 바통이 꿋꿋이 이어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어머니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는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어머니들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의 줄기찬 계승속에서 이 조선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모습에서 자기의 삶은 후대들을 위한것이고 자기가 피와 땀을 묻은것만큼 자손들이 잘살게 될 부강한 조국이 건설된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읽고있으며 그 아름다운 생의 흔적들을 다시금 더듬어보고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낳아 키워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품속에서 성장한 추억깊은 사연들과 못잊을 모습들이 간직되여있습니다.

그가운데서 자식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는것은 늘 바삐 살고 젖은 손 마를새 없었어도 자기를 위한것이란 하나도 없었던 헌신의 일평생 그리고 자식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제일로 기뻐하고 티끌만큼이라도 죄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매를 들며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일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기가 준 육체적생명보다 당에서 준 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누리는 삶보다 바치는 삶이 더 값있다는것을 자기의 모범으로 가르쳤고 우리 후대들은 책에서보다 먼저 어머니의 가르침과 모습에서 인생과 애국의 참뜻을 깨달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의 품에서는 훌륭한 자식이 자라기마련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품에서 나서자라 그 자욱자욱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삶의 진가를 배우며 성장한 후손들이 다음세대에 애국충성의 바통을 넘겨주고 그것을 다음대가 넘겨받아 자자손손 물려주는것이 우리 조국의 미래가 건설되는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세대와 세대를 애국의 한피줄로 이어주는 참으로 귀중한분들이며 아름다운 미래의 첫째가는 건설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주력으로 되고 강대한 우리 국가를 떠받들어야 할 새세대들을 잘 준비시키는것은 제1차적인 혁명과업입니다.

인생에서 첫걸음이 중요한것처럼 가정교양과 학교교양,사회교양중에서도 가정교양이 첫자리를 차지하며 여기서도 어머니의 영향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에서는 소년단대회와 어머니대회를 다른 대회들보다 더 중시하며 이번 어머니대회도 당중앙위원회적으로 관심하고 직접 조직하면서 품을 들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실질적인 계기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당과 정부의 중요시책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몇가지 당부도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싶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나쁜 놈들의 방해책동도 전례없이 악랄하였지만 우리는 10여년전과 대비할수 없는 변혁들을 무

수히 이루어냈으며 앞으로 더 높은 리상과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히 투쟁하여 또 10년후에는 상상할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상을 펼쳐놓자고 합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현실로 보고 듣고 느끼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주요정책들과 시책들만 보아도 그것은 더 좋은 생활조건과 더 문명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제일 필수적인 요구가 식의주인데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식량문제를 완전히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세기적인 락후성의 대명사로 되여있던 농촌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이를 앞당겨오기 위해 당과 정부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힘들 때이지만 해마다 중요부문까지 총동원하여 수많은 농기계들과 영농물자들을 농촌에 보내주고있으며 올해에는 몇십년동안 손을 대지 못하고있던 전국의 관개시설들을 복구하고 완비하기 위한 대규모의 공사들을 전개하여 농업생산토대를 닦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부문에서 강력히 내밀고있는 벼와 밀,보리위주의 농사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축산과 과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대규모 온실농장들을 건설하는 사업은 아이들과 식구들에게 항상 맛좋고 영양가높은 음식을 차려주고싶어하는 어머니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간석지개간사업도 마찬가지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흰쌀밥을 먹게 하자면 서해연안의 간석지를 무조건 개간해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는데 간석지건설을 7～8년사이에 완전히 끝내기 위해 우리 군대가 간석지를 말아 건설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비록 헐치 않은 대자연개조사업이지만 우리 대에 만년대계로 완성해놓으면 후대들이 더는 농경지부족과 먹는 문제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그 덕을 자자손손 보게 될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관심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적지 않은 일들을 하였을뿐아니라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당과 정부가 많은 품을 들여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젖제품을 매일 먹이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소나무》책가방과 교복,학용품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소년궁전들과 야영소,소년회관들을 변모시킨것이 참으로 보람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종들에서 우리의 새세대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하고 선진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제일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힘있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학공업창설과 화학섬유생산능력조성에 국가적인 막대한 힘을 넣고있으며 우리 어머니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의 옷차림을 더욱 문명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적인 피복제품전시회와 같은 발전공간들을 적극 장려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전국적판도에서 그 어느때보다 거창한 대건설들이 벌어지고있는데 여기에서도 기본의 기본은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는것입니다.

우리당 제8차대회 결정에 따라서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벌써 3년째 어김없이 진척되여 해마다 1만여세대의 수도시민들이 새 거리들에 입사하고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리상사회에 상응한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희한한 실체들을 드러내여 농업근로자들에게 차례차례 안겨지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소재지들과 시,군소재지들까지 현대문명에 어울리게 개변시키는 건설을 진행하여 수도와 지방,산골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변모되는 새세상을 안아오자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시민들의 생활용수와 땔감문제,대

중교통운수와 승강기,난방보장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그 경험에 토대하여 지방도시들의 생활용수문제를 비롯한 필수적인 생활상문제들을 아무런 불편도 없게 원만히 해결해나가자고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당과 정부가 계획하고있는 중대시책들중에는 각 도소재지들에 현대적이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시설들을 갖춘 종합병원들을 일떠세우는 사업도 포함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인민적시책들이 예견되여있는데 이 모든것이 다 실현되면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참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전도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변화된 리상사회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역군으로,미래사회의 주인공들로 키워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혁명가의 첫걸음도 어머니의 젖줄기에서 시작되며 그의 참된 성장도 어머니의 손길아래서 이루어질수 있는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의 위치와 임무를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들만 교양자적책임을 다하여도 청소년들은 물론 전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데서 보다 빠르고 확실한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우선 어머니들자신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공산주의어머니가 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아들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수 없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어머니를 보라는 말도 있지만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못견디는 성정을 지닌 어머니들의 슬하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자기 아이만을 생각하고 한가정만을 위해 능력껏 뛰여다니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인생관,세계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어려움을 맞들어주고 부축해주며 남의 슬픔을 놓고 함께 울어주는 미덕,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웃과 나눌줄 알고 남의 일이 잘되는것을 제 일처럼 기뻐하는 인간미가 우리 어머니들모두의 성품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지키고 가꾸어가는 가정의 화목도 자녀들의 성장에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가정의 주부로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꾸리고 집안의 기쁨과 화목을 도모해나가는것도 나라를 위한 큰일이라는것을 항상 새기고 다심한 어머니,고마운 안해,살뜰한 며느리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자식이 잘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어머니라면 자식들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속에서 의식적으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장들은 한가정의 뜨락에서 얻을수 없는 귀중한 인생의 체험을 주고 동지들과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난관을 이겨내는 의지와 능력을 키워주는 혁명대학입니다.

자기 당,자기 제도의 귀중함을 투쟁과 생활속에서 체득하면서 나라의 대들보로 끌끌하게 자라는 자식의 성장을 보는것보다 어머니들에게 더 큰 락은 없을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자식의 옳바른 성장을 위하여 눈물을 머금으며 아픈 매를 들던 그 본연의 진정으로 자식이 귀할수록,자식을 사랑할수록 어렵고 힘든 초소와 일터로 기꺼이 떠밀어보내야 합니다.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녀들의 정신도덕생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례절도 밝고 순진하고 깨끗하던 자식들이 자라면서 점차 도덕이 없어지고 나쁜 물을 먹는것은 자식이 커가면서 어머니들의 관심이 멀어지는데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만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고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도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도덕생활을 건전하게 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공부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언어례절을 비롯한 례의와 도덕에 대한 교양은 소홀히 하거나 우리 식이 아닌 언행을 뻔히 보면서도 내버려두고있으며 또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면서 남

보다 특별하게 내세워야 어머니구실을 잘하는것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는데 어머니들이 적극 합세하여야 그러한 현상을 완전히 소거할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실천적모범으로써 아들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녀성근로자라는 부름은 비록 소박해도 우리 위업의 진리성과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적인간의 빛나는 영예이며 뚜렷한 표징입니다.

어머니들은 한가정의 울타리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공장과 일터에서 성실한 애국의 땀을 바치고 혁신을 일으키는것으로써 자식들앞에 떳떳한 사회주의근로자가 되여야 하며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보람있는 삶의 자욱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원군사업과 대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들을 적극 찾아하면서 공민된 도리를 다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들이 우리가 겪고있는 현 난국의 첨예성과 그 원인,이런 환경에서도 거창한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비결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들부터가 우리가 달성하고있는 오늘의 승리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잘 알고 적들의 온갖 기도와 모든 위선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이 곧 다름아닌 애국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 떨쳐나설 때 우리가 목표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그만큼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녀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어머니들이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고 도와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자식들이 어머니품에 의탁한다면 어머니들이 의탁할 곳은 조직의 품입니다.

어려운 생활속에서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며 속쓸 일도 많고 힘에 부칠 때도 많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조직의 따뜻한 손길이 늘 닿아있으면 큰 힘이 될것입니다.

우리 당은 몇몇 특정한 어머니들이 아니라 온 나라 어머니들모두가 공산주의에로 가는 한 대오에서 삶을 빛내여갈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설사 지금까지는 평범하게,지어 떳떳치 못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조직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래일은 모범적인 어머니로,혁신자로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당조직들과 녀맹조직들은 어머니들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이 애국적열성과 공민적의무에 기초한 자각적인 사업으로 되도록 옳게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산주의어머니대렬을 늘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면서 당조직들과 녀맹조직들에서는 어머니들스스로가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본분을 자각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 충실히 키우도록 계발시키고 진정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시,군당위원회들에서는 녀맹사업이 우리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녀맹조직들이 제구실을 하도록 늘 관심을 돌리고 녀맹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하며 과도한 부담을 주는데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당 및 정권기관,경제기관들에서는 다자녀세대들에 살림집배정,식량과 상품공급,의료봉사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것을 비롯한 국가적혜택들이 정확히 가닿게 하며 특별보조금도 실지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게 적용하고 여러 방면에서 우대조치들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고 누구보다 고생많고 수고많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숙원이며 여기에는 대대로 품어온 우리 어머니들의 꿈이 실려있습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아름다운 터전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는 어머니들의 꿈과 념원을 경건히 걸머지고 최선을 다하여 실현하는것은 더없이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들과 어머니들이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바라는 모든것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하여 더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참되고 위대한 어머니들이 바로 다름아닌 우리의 어머니들이라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렇듯 훌륭한 어머니들을 어머니라 부를수 있는것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타고난 커다란 복이고 행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어머니들이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페회를 선언합니다.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앞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시기에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당의 은정속에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뜻깊은 대회에 즈음하여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조국의 녀성들과 함께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어머니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경의를 보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961년 11월 16일 조국력사상 처음으로 전국어머니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서 어머니들이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조국의 어머니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고결한 충정과 불같은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으시여 우리 녀성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시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하신 뜻깊은 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여주시고 첫 어머니들의 명절을 맞으며 제4차 전

국어머니대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이역에 사는 우리 재중조선인녀성들도 대회에 불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온 나라의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되는 제５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는 수많은 가슴뜨거운 화폭들이 펼쳐질것입니다.

오늘 조국의 어머니들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있는 공장과 농장,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있는 건설장들과 탐구의 열정으로 들끓는 과학연구기지들,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그 어디에서나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어머니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중에 제일 강한 사랑, 사랑중에 제일 뜨거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후대들을 위한 길,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모진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가는것이 바로 내 조국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지닌 참된 인생관입니다.

모든 어머니들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어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그토록 값높고 긍지스러운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이 세계의 최정상에 솟구쳐오른 긍지와 자부심속에 개최되는 제５차 전국어머니대회는 어머니들이 당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을 앞당겨 건설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대회로 될것입니다.

제５차 전국어머니대회의 개최를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１１２(２０２３)년 １２월 ３일

중국 심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위대한 장군님서거 12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추모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추모모임이 12월 17일 본부청사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추모모임장소 정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추모모임에는 최은복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합회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김경수부회장, 심연택지부장을 비롯한 심양시공민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편지가 랑독되였다.

이어서 최은복의장동지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오늘 우리는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장군님을 추모하고있다



고 하면서 총련합회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애국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전무후무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고 언급하면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으시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력사가 일

찌기 알지 못하는 애국헌신의 대장정으로써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였으며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새 세기 산업혁명 등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 기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조선혁명사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새기시였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리키신 혁명의 진로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지혜와 마음을 합쳐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숭고한 애민헌신의 한평생>,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강국건설의 령도자>, <강국건설의 장정>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인민사수,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한평생이였다고 례찬하였다.

토론이 끝난후 영화문헌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1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학습하였다.

같은 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겸 회장 리순남동지를 비롯한 경제인련합회성원들, 한성옥회장을 비롯한 청년협회성원들, 주계숙 지부장을 비롯한 단동시지부공민들이 단동조선공민활동실에서 영화문헌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1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학습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인민으로 해주시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에서 혁명생애를 마감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으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우리 모두의 어버이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다시한번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국가의 강위력한 힘의 실체들이 태여나고 민족사적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될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 생각으로 가슴적시시며 오늘날에 우리들의 심장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어주시고 충성과 애국으로 충만된 천만의 사상의 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우에는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함께 떨쳐나설것이라고 마음을 다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연변지구협회 회고모임이 17일 연길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겸 연변지구협회 회장과 최명진부회장,김권부회장, 심홍광사무장, 산하지부장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들, 연길시에서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영화문헌《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 1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학습하였다.

이어서《로동신문》12월 17일《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랑독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여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행복을 누릴수 있는 부강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야전복을 입으신채 쪽잠과 줴기밥이라는 눈물 겨운 시대어들로 생의 자욱자욱을 수놓으시여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시고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시여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심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땅우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온 나라에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며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한결같이 말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천하제일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그리움의 12월

집안시지부장
허상숙



그리움의 송가가 삼천리강산에 울려퍼지는 12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사무치게 안겨온다.

하얀 눈으로 온 강산을 장식하는 12월은 우리들로 하여금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애민헌신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인민사수,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한평생이였다.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에게 있어서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빛내여주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떼를 지어 달려들던 1990년대 중엽, 사상최악의 시련속에서 사랑하는 인민과 후대들의 영원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였으며 이땅의 가는곳마다에는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사생결단의 길을 넘고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길이 있어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도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칭송할 거대한 업적이다.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되게 하시려고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이 고결하고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하시고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유산으로 빛내여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애민헌신의 력사는 오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져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저는 집안시 지부장으로서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우리 지부를 조국인민들의 사상과 뜻, 숨결과 행동을 같이하는 지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동포제일주의를 지부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공민들이 따르고 사랑하는 지부로 꾸려나가기 위해 본분을 다할것이다.

단동시 공민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학습하였다



단동시공민들이 12월 17일 단동조선공민활동실에서 원수님께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하신 개막사와 강령적연설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를 학습하였다.

리순남 부의장 겸 경제인련합회 회장, 한성옥 회장, 주계숙지부장을 비롯한 경제인련합회 성원들, 청년협회성원들과 지부공민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들을 상세하게 학습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가정에서 조국애, 민족애를 심어주고 사랑하는 조국의 부흥발전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심양시지부에서 2023년도 사업총화 및 새해맞이 모임 진행

심양시공민들이 올해 사업을 자랑차게 총화하는 모임이 12월 9일 심양시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심양시공민들과 본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올해 사업총화를 심연택지부장이 하였다.

그는 지부에서 진행한 활동과 공민들의 권익보장, 공민돕기에서 이룩한 성과와 애국사업에 기여한 지원총화를 진행하면서 2023년 지부의 성과는 심양공민들이 지부를 받드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한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더욱 활기있고 움직이는 지부로 꾸리기 위한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2024년은 동포방문활동을 주선으로 하고 모든 공민들에게 사회의료보험에 참가하도록 도움을 주며 지부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공민들을 이끌어주며 서로 돕고 화목한 지부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공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마음을 합쳐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끝으로 그는 지부의 활성화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길에서 손잡고 나아가자고 격려하면서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하였다.

총화가 끝난후 류창환부지부장이 조국관, 애국관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조국과 총련을 받드는 길에서 초심을 잃지말고 민족사명을 안고 조국인민들과 보조를 맞춰 사회주의부흥강국건설에 지혜와 마음을 바쳐나가자고 격정을 터치였다.

계속하여 권헌 료녕지구협회 회장의 격려의 말이 있었다. 그는 올해에 의의있는 성과들을 이룩한 심양시지부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서 새해 2024년이 지부공민들에게 있어서 보다 보람차고 풍만한 한해로 될것이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받들고 일심단결하여 지부를 공민들이 의거하고 사랑하는 정으로 맺여진 따뜻한 지부로 만들려는 마음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새해맞이 모임이 진행되였다.



길림지구협회, 할빈지구협회에서 2023년도 사업총화모임

□□

길림지구협회 2023년도 사업총화모임이 12월 15일에 화상형식으로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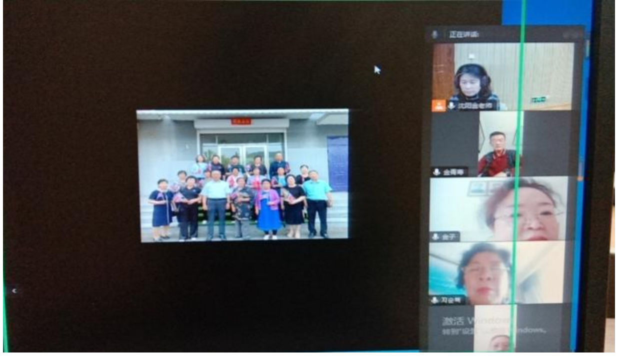
화상모임에 산하 지부일군들과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지순복사무장의 사회하에 진행되였다.

모임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영화문헌<<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1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학습하고 집안시 허상숙지부장이 발표한 글 <<그리움의 12월>>이 랑독되였다.

먼저 길림지구협회 2023년의 활동사진을 동영상으로 방영하였다.

다음으로 김청수부회장이 협회 2023년도 사업총화를 하였다. 그는 총화에서 2023년을 돌이켜보면 산하지부에서 정말 다양한 모임들을 진행하여 지부의 영향력을 높였다고 하면서



이는 공민들이 지부를 받드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룩된 성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김련원부회장이 더욱 활기있게 움직이는 지부로, 화목한 지부로 꾸리기 위한 202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는 2024년은 동포제일주의를 구현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지부일군들이 자신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며 걸음걸음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모든 힘과 열정을 다 바쳐 일해 나가자고 피력하였다.

새해 활동계획에 대한 토론과 보충이 있었다.

모임을 마치면서 새해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모임은 지부의 활성화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길에 더욱 공조하고 받들며, 협회가 화목하고 상부상조하는 정과 사랑으로 넘치는 지부로 만들기 위한 안받침으로 될것이다.

할반지구협회에서 12월 26일 년간총화모임을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회장를 비롯한 협회일군들과 산하 지부장들이 참가하였다.

총화모임은 먼저 박일남회장이 협회 2023 년도 사업총화를 진행하고 2024 년도 사업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또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공민권익보장에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부일군들의 역할과 사업체계를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자고 마음들을 합치였다.

모임을 마치면서 새해축하의 인사도 나누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 사업총화진행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 12월27일 단동공민활동실에서 년말사업총화 및 2024년사업계획, 및 기금총화를 진행하였다.

한성옥청년회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청년협회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과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자고 마음들을 합치였다.

중남지구협회 실태료해 사업진행

중남지구협회 담당 김연주국장

1.총련합회에서는 2023 년 11 월 20 일 ~ 11 월 28 일까지 베이징시지부, 제남시 분회, 청도분회, 위해, 연태, 상해시 지부, 무석분회 공민들의 실태료해를 진행하였다.

이번 실태 료해에는 총련합회 동주봉 사무국국장, 김연주 문화국 국장겸 중남지구협회 담당 , 중남지구협회 백경헌 회장, 베이징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최광성 령사부장 동지, 손영기 령사동지가 참가하였다. 11 월 20 일 동주봉국장, 김연주 국장이 아침 고속렬차로 출발하여 베이징 역에 도착하였다. 베이징역에는 백경헌회장, 서인석선생이 마중하였다. 그날 오후 우리 나라 대사관 공민학습실에서 령사부장동지, 령사동지가 우리 일행과 함께 베이징 공민들과 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베이징시 지부 공민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공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중공민들이 5 대 은행카드 차단으로 생활상에 불편을 호소하며 해결을 제기하고 지방에서 퇴직한 년로한 공민들이 해마다 당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편한 문제들, 이러 저러한 안타까운 마음속 이야들을 제기하였다. 그날 저녁 총련합회의 자그마한 성의로 공민들과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현시기 조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원수님의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는 친어버이 사랑을 전해주며 위로와 신심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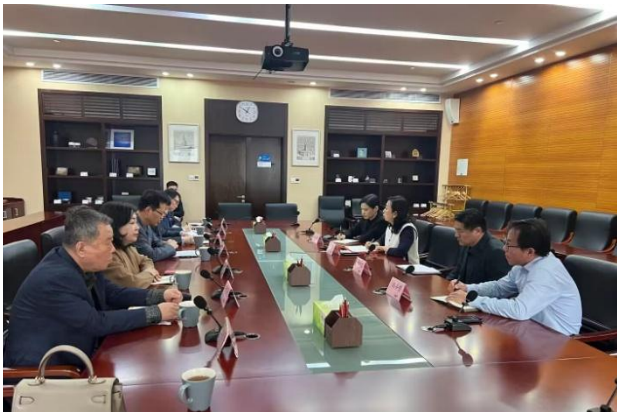
제남분회 실태료해 사업진행

2. 11 월 21 부터 ~22 까지 제남분회를 방문하였다. 우리 일행이 고속렬차로 제남서역에 도착하자 김정란 분회장, 김정아 공민과 자녀가 반



갑게 마중하였다.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에 행장을 플어놓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남 공민들의 전반적인 사업과 생활상에 제기되는 애로들을 이야들을 나누었다. 다음날 22 일 대사관에서 보낸 각서에 따라 제남시 외사반공실 일군들과 시정부 외사반공실에서 면담을 가지였다. 외반공실 일군들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면담을 가지였다.

면담에서 령사부장동지는 선대수령들이 마련해주신 피로써 맺어진 조중 친선으로 이어온 우호관계로 오늘 제남시 정부에서 우리 공민들을 잘 돌봐준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뒤이어 현시기 제남시에 살고있는 공민들이 2017 년부터 유엔 제재 영향으로 5 대 은행카드 차단으로 사업과 생활상에 불편한 문제들과 제남시에 살고있는 공민 최창걸로인의 주택 철거에서 응당 받아야할 보상을 받지 못한 어굴함을 제기하고 해결해주기 부탁하며 앞으로 제남시 정부에서 년로한 우리 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도와주기를 부탁하며



그들과 헤여지였다. 그날 정심 제남시분회장의 예약한 식당에서 공민들과 가족 2 명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사업상, 생활상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였다.

전국적으로 우리 공민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은행카드 차단으로 제남시 공민들도 사업과 생활에 에서 애로가 콤푸터 다운로드가 안되 병을 보는데 힘든 문제, 중국 사람들은 려행을 자유롭게 다니지만 조선 국적자들은 갈수없다는 하소연들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제남시공민들에게 원수님의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이렇게 공민들을 찾아 왔다며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애로를 격고있지만 신심을 가지고 건강히 생활해 나갈것을 부탁하며 친 형제를 만난 심정으로 오찬을 가지고 제남시 공민들과 헤여지였다.

청도,위해, 연태 분회 실태료해 사업진행

3. 11월 23일 제남 ~ 청도북역 고속렬차로 10시30분 청도북역에 도착하였다. 역전에는 할얼빈에 살고있던 허광렬로지부장, 김창선공민이 우리 일행 5명을 마중하였다.

그들의 안내로 사전에 예약한 식당에 도착하니 공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도에 살고있는 공민들은 모두가 타지방에서 자식들을 따라와 살고있는공민들이였다.
총련합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타지방에서 청도지역에 나가 사는 우리 공민들이 여러명 있다는것을 알고 조직을 무어야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날에야 찾아오게



되였다.
공민들은 수년간 조직과 떨어져 살아온 외로움으로 자신들을 찾아 먼나먼 길을 찾아준 우리 일행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공민들은 그간 조직을 떠나 외롭게 살아온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조선공민으로 살면서 은행카드 차단으로 모든 사업과 생활에 저애를 받고있는데 대해 가슴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일행은 공민들의 사업상, 생활상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청도분회를 조직해주고 서로간의 전화번호와 위채퀀을 만들어주어 항시적으로 총련과 련계를 될수있도록 조직사업을 하고 오랜만에 만난 공민들을 위해 총련합회의 자그마한 성의로 식사를 시키고 청도를 떠나 위해에서 숙박을 하였다.
11월24일 오전 사전의 약속대로 위해시 동포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해시에 살고있는 5명의 공민들과 가족 2명이 만남을 가지였다.
위해시에 사는 공민들 역시 은행카드 차단으로 사업과 생활에서 불편함이였고 조직과 련계가 없어 영구신분증을 받지못해 하루하루를 로심초사하며 긴장하게 살아왔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일행은 공민들의 애로에 동감하면서 위로와 신심을 주고 해결책을 알려주고 공민들 서로간의 련계번호와 위채추가를 하고 청도 공민들과도 위채 추가를 하여 련계를 가지도록 하게하였으며 총련합회의 성의로 정심 초대식사를 시키고 연태로 출발하였다.
11월24일 저녁 우리 일행이 숙박하는 호텔에 도착하니 총련합회에서 사업하던 전 사무국 국장 조국제선생과 딸이 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국제 전 사무국장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



여 딸의 부추김을 받아서 우리 일행을 만나러 왔다. 우리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총련합회 의장동지의 안부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상해시지부 실태료해 사업진행

4. 11월25일 ~ 11월28일까지 상해시지부 실테료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일행은 11월 25일 저녁 고속렬차로 상해시에 밤10시경에 도착하였다. 역전에는 상해시지부장 림건화를 비롯한 3명의 공민과 상해시에서 살고있는 목단지구협회 회장 아들 안승남



젊은이가 상무차를 가지고 5명의 우리 일행을 마중하여 상해시 호텔로 안내하였다.
11월26일 오전 상해시 전 지부장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있어 령사부장을 비롯한 일행이 구본기 로지부장이 입원실을 찾아갔다.
구본기 로 지부장은 바쁜 일정에 이렇게 찾아와 준데 대하여 감사하다며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로지부장에게 위로와 신심을 주고 총련합회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헤여지었다.
우리 일행은 병원에서 나와 11시경 사전에 예약된 공민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다. 모임에 참가한 상해시 공민들은 먼길을 찾아온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상해시 공민들도 은행카드문제로 사업과 생활상에서 애로문제들과 중국인들과 같이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 조선공민으로서 고령자 보조를 받을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11월27일 사전의 약속대로 대사관 령사부장동지, 령사동지, 동주봉사무국 국장, 김연주 문화국 국장, 백경헌 중남지구협회 회장, 림건화 상해시 지부장일행이 상해시 정부 외사반공실을 방문하였다. 외사반공실에 도착하자 상해시 외사반공실 부주임 일행이 반갑게 마중하였다.

상해시 정부 외사반공실 주임은 먼길을 찾아온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며 상해시 체류기간 건강과 많은 곳을 돌아보기를 바라였다.

령사부장동지는 선대 수령들이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오늘은 경애하는 총서기 김정은동지와 중국 공산당총서기 습근평동지의 친근한 우정으로 발전되고있다면서 오늘 우리가 상해시 정부 외사반공실을 방문하여 상해시에 살고있는 조선공민들이 2017년 유엔제재 이후 은행카드 차단으로 사업과 생활에서 애로를 받고있는문제, 고령보조 문제등 여려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있도록 제기하였다. 상해시 외사반공실 주임은 령사부장동지의 제기를 심중히 듣고 앞으로 해당기관에 알아보고 대책을 취할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40분 가량의 면담을 끝마치고 상해시 외사반공실을 떠났다. 대사관 령사부장과 령사동지는 바쁜 일정으로 베이징으로 돌았갔다.

11월 27일 오후 동주봉국장, 김연주국장, 백경헌회장은 상해근처 무석시에 살고있는 공민들을 찾아갔다.

무석시에서 사업하고있는 1983년생 배금철 젊은 공민은 조선공민으로 사업하면서 애로가 많지만 성공한 기업가였다, 조선말은 하지못하지만 여러가지 강철제품을 판매 운영하여 회사를 성공시키였다.

그 공민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 시기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회사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였다.

우리 일군들은 배금철 공민에게 앞으로 중남지구협회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조국이 국경이 열리면 젊은 기업인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조국도 알고 경제거레를 하기를 건의해주고 헤여졌다.

중남지구협회 실태료를 11월 20일 ~ 28일까지 끝마치였다.

축복하노라 나의 조국이여!

김영희 재중총련본부

곧 새해 2024 년을 맞게 되는 이 시각 저는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며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긴 2023 년의 려정을 격정과 감회속에 돌이켜보며 강국의 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도 세련된 령도밑에 공화국창건 7 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 0돐을 뜻깊게 경축한 공화국의 2023 년은 우리식 사회주의발전행로와 공화국력사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난 한해였으며 국가부흥의 길에서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방대한 목표를 변혁적실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강령들로 꽃피운 한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2023년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 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혁혁한 발전을 이룩한 2022년의 전인민적인 투쟁을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제8기 제7차, 제8차전원회의들에서 사상리론과 투쟁방침들을 제시하시여 실제적인 변혁, 실질적인 전진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을 이룩하시였다.



농업관개건설의 새 력사와 농촌기계화의 동음이 전야마다 울려퍼지고 화학공업의 탄산소다공업창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결정망초생산공정건설이 완공되고 고질마그네샤크링카생산체계가 확립되는 등 자립경제의 속살을 다지는 자랑찬 창조물들이 일떠섰다.

황주긴등물길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방략으로 종합적인 축산농장이 이어지고 평양시 서포지구와 화성지구 제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현실과 전국도처에 농촌진흥을 상징하는 사회주의리상촌들이 늘어났으며 검덕지구에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 문명한 광산도시가 일떠서고있는 국가의 발전잠재력과 문명의 높이를 이룩하였다.

산악협곡도시 - 검덕지구 살림집

이처럼 눈부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조국청사에 특기할 미증유의 기적적성과들이 다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공화국을 상대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형세하에서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의 발사는 공화국핵전략무력과 자위적국방력을 강화추동하여 우리 공화국의 절대적힘, 절대적 강세를 만천하에 더욱 뚜렷이 떨쳐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천재적인 예지와 강인담대한 신념과 배짱에 의한 정찰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인 전술핵공격잠수함의 탄생은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빛나는 성과이다.







조로관계의 강화발전사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방문은 동지적우의와 전투적단결에 뿌리를 두고있는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로 세계정치지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값비싼 승리와 사변적인 성과들로 올해를 마감하는 긍지스러운 시점에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해주시고 몸소 참석하시여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관한 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조국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는 세세년년 끝없이 이어지게 되였다.

되새겨볼수록 강국의 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뿌듯해진다.

2023년의 격동적인 사변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만고불멸의 대업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 탁월한 수령을 모신 강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똑똑히 절감하는 2023년이다.

저는 새해에도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유일무이한 강령으로 사업에 구현하며 모든 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전환시키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해나갈것이다.

새해를 맞는 이시각 또다시 공화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길 2024년을 그리며 나의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축복한다.

조국소식

zuguoxiaoxi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진행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12월 3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대회에는 자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 국력강화와 사회주의대가정의 부흥발전에 공헌한 어머니들과 모성영웅들,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돌봐준 어머니들,중앙과 지방의 녀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이후 지난 10여년간 어머니들속에서 발휘된 긍정적모범들을 소개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어머니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공산주의어머니라는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부름으로 빛내여주시며 존엄높은 강국시대를 떠밀어나가는 참다운 주인공들로,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격정의 눈물속에 우러르며 최대의 경모심을 담아 오래도록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행복한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가정과 조국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후대들을 위한 천만고생을 락으로 달게 여기며 끝없는 사랑과 정으로 우리 혁명에 거대한 힘과 무궁한 활력을 더해주는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들이 애국의 마음으로 소중히 가꾸어준 가정의 작은 울타리들이 그대로 주추돌이 되여 나라를 억세게 떠받들고 있기에 사회주의대가정이 굳건한것이고 우리 조국이 계속 강해지고있는것이며 바로 이것이 조선의 어머니들이 당과 혁명,조국앞에 이룩한 불멸의 공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축원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대단히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밝히시고 이번 대회가 모든 어머니들이 시대적사명과 자기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애국위업에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뽀르뚜갈민주녀성운동 전국집행서기, 아르헨띠나녀성동맹 위원장이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앞으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가 대회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이후 우리 녀성들속에서 11명의 공화국영웅과 50여명의 로력영웅, 3,500여명의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 배출된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보고자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영원한 화목과 번영, 대대손손 부강할 조국의 래일이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시대와 혁명이 안겨준 값높은 영예와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

대회에서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고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어머니





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출한 공헌을 한 녀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이 수여되였다.

대회장은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해가는 녀성들의 평범한 삶을 숭고한 모성애의 정화로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격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 령적인 연설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아름다운 터전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는 어머니들의 꿈과 념원을 최선을 다하여 실현하는것을 영예로운 임무로 삼고 더 힘차게 투쟁해나갈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어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하시면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페회를 선언하시였다.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을 키우고 혁명적인 가정의 대, 존엄높은 강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조선녀성들의 철석의 의지를 백배해준 긍지높은 대회합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와 1만 5,000㎥/h산소분리기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줄기차고 굴함없는 투쟁으로 청사에 특기할 뜻깊은 주체112(2023)년을 경이적인 사변들로 장식하는 크나큰 자긍심으로 온 나라가 환희에 넘쳐있는 격동의 시기에 주체조선의 활기찬 전진기세와 필승의 힘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실체가 북방의 대야금기지에 장쾌하게 솟구쳐올랐다.

5년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의한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세기를 이어온 콕스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던진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와 1만 5,000㎥/h산소분리기들이 증설됨으로써 김철의 주체철생산능력은 2배이상으로 장성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5개년계획의 중대과업의 하나인 김철의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건설이 완결됨으로써 우리의 금속공업은 력동적인 발전의 새 주로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국가경제의 상승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립경제의 위력을 증대시키는 이 귀중한 결실로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를 옹위하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당결정관철의 의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준것은 그 무엇에도 비

길수 없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와 1만 5，000㎥/h산소분리기 준공식이 12월 20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내각부총리 양승호동지,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삼동지, 금속공업상 안금철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건설에 기여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 함경북도당위원회 일군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성원들,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데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로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받들고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우리의 제철공업을 주체화의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국가경제발전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이 일떠선 이 사변적성과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창조하고 또 창조하며 과감히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완강한 계속혁명정신의 발현이며 강철로 당을 옹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로동계급의 억척의 신념을 실천으로 증명한 애국적장거이라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우리 조국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줄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투쟁위훈과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내각총리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총리동지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전인민적인 자력갱생대진군의 전위답게 무한대한 혁명열과 투지, 비상한 창조본때로 조선의 리상과 정신, 슬기가 응축된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일떠세워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김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경의를 드리였다.

북방의 대야금기지에 솟아난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는 조선로동당의 자존, 자립사상의 고귀한 산아이며 당의 주체철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애국적헌신의 결정체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 제8차대회가 주체적인 철생산기술을 완성하는것을 자립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로 내세우고 금속공업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발전지향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들을 수립하도록 하시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워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경험에 토대하여 새형의 산소열법용광로를 더 건설하고 생산능력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와 1만 5，000㎥/h산소분리기의 준공은 당중앙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자립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인민의 힘은 무한하며 우리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내각총리동지는 모두가 당결정관철의 승전포성을 장쾌하게 울린 기세드높이 5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본보기적실체

평안북도 운산군 답상농장에서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우리식 농촌발전의 새



시대와 더불어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리상촌들이 늘어나고있는 속에 평안북도 운산군 답상농장마을이 희한하게 변모되여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

지역의 자연기복을 따라 단층, 소층, 다락식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살림집들주변에 살구나무, 은행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내린 새 마을에는 공동축사와 태양빛전지판에 의한 조명체계가 갖추어져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물놀이장과 휴식터도 훌륭히 꾸려져있다.

평안북도와 운산군의 일군들은 당의 농촌건설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할 열의드높이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키고 건재생산단위들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대책을 강구하며 공사조직과 기술적지도를 심화시켰다.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건설자들은 국가에서 마련해준 세멘트를 비롯한 건재들을 최대한 효률적으로 리용하고 시공의 속도와 질을 끌어올릴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며 농장마을을 우리식 문명창조의 본보기적실체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살림집입사모임이 5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문경덕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철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로동당시대 농촌발전의 새 풍경을 펼치며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농업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국땅 곳곳에서 솟아오른 선경마을들은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시고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어머니당의 대해같은 은덕을 잊지 말고 자기가 사는 고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더 잘 꾸려나가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불면불휴의 령도로 이 땅우에 농촌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시고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

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며 당이 제시한 농업발전의 5대요소,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틀어쥐고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더욱 늘여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군들이 새살림을 펴는 가정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문화농촌마을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투쟁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 준공식 진행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는 속에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이 훌륭히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경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데트론섬유생산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로력과 설비, 자금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전반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대용원료에 의한 데트론중공섬유생산공정과 솜가공 및 이불생산공정을 그쯘히 갖춘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나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 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애도간석지건설 시작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애도간석지건설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간석지개간을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간석지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정주시의 신봉리, 애도, 일해리를 련결하는 수십리의 방조제를 쌓아야 하는 애도간석지건설의 공사량은 방대하다. 이 건설이 끝나면 수천정보의 새땅이 생겨나 나라의 알곡생산에 이바지하게 된다.

지난 시기 대계도와 홍건도, 월도간석지건설을 비롯한 중요한 공사과제를 맡아 훌륭히 해제낀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신심도 드높이 애도간석지건설에 달라붙었다.

종합기업소에서는 월도간석지, 홍건도간석지 1단계 조유지제방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애도간석지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준비를 다그쳤다.

맵짠 바다바람과 추위속에서도 도로건설과 합숙건설을 계획대로 내밀면서 수리기지전개와 토량확보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뛰였다. 특히 로하간석지건설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비상한 각오를 안고 이틀동안에 수십m의 굴진을 진행하여 착공의 첫 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국가검열위원회, 평안북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 공사준비에서 걸린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었다.

간석지를 하루빨리 건설하여 벼바다 설레이게 할 결의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정에 의해 간석지건설준비는 불과 보름동안에 끝나게 되였다.

계획대로 간석지건설에 착수한 이들은 지금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평안북도승마구락부 새로 건설, 준공식 진행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평안북도승마구락부가 새로 일떠서 준공하였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에 맞게 신의주시의 경치수려한 곳에 번듯하게 꾸려진 승마구락부에는 승마주로와 조마장, 훈련장을 비롯하여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있다.

승마구락부가 일떠섬으로써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며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또 하나의 대중승마봉사기지가 마련되게 되였다.

평안북도승마구락부 준공식이 13일에 진행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승마구락부를 돌아보았다.

대중급양봉사기지인 평남면옥이 훌륭히 개축되였다



풍치수려한 모란봉지구에 자리잡은 평남면옥이 새롭게 변모되여 수도시민들에게 기쁨을 안







겨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남면옥을 인민의 봉사기지답게 훌륭히 건설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와 시공, 로력과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인민봉사지도국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이곳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종전의 낡은 건물을 없애고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다락식으로 층수를 높인 연건축면적이 1만여㎡에 달하는 합각지붕의 조선식건축물을 특색있게 일떠세웠다.

새로 건설된 평남면옥은 건물의 외부와 내부의 모든 면모가 독특하고 정교하며 8개의 대중식사실과 대동강맥주봉사실, 7개의 주방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인민들이 즐겨찾는 평남면옥이 보다 훌륭히 개축됨으로써 평양랭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족음식과 청량음료를 더 맛있고 질좋게 만들어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강원도 세포군민발전소, 평강군민발전소, 내평3호발전소건설 준공식 진행

세포군민발전소가 훌륭히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강원도안의 여러 군민발전소건설에서 돌파구가 열리고 세포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지방공업과 축산업 등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력생산토대가 구축되였다.

세포군민발전소 준공식이 15일에 진행되였다.

강원도당위원회 비서 김명철동지,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건설자들,발전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원도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평강군민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하였다.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

평강군민발전소 준공식이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결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동지,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건설자들,발전소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는 속에 내평3호발전소가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일떠서 준공하였다.

수력발전기지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강원도의 물원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였다.

내평3호발전소 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되였다.

수력발전기지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강원도의 물원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홀향상에 필요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였다.











더욱 창창할 우리 축구의 미래



평양국제축구학교

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릉라도에는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을 키워내는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있다.

축구공에 꿈을 실은 학생들은 저저마다 평양국제축구학교에 오고싶어한다.

학교에서는 공화국의 청소년체육학교 축구소조원들과 축구에 남다른 취미를 가진 학생들가운데서 축구기초기술과 육체적조건이 뛰여난 학생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발대상의 나이가 어린 조건에서 현재는 별로 눈에 띄우지 않지만 앞으로 크게 발전할 학생들도 받아들이고있다.

또한 학생선발은 한번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계속되고있으며 뛰여난 선수후비는 언제든지 편입 또는 입학할수 있다.

학생선발 못지 않게 교원선발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지난 시기 국제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체육인들과 평양시안의 여러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들을 실기교원으로, 전국의 보통교육부문에서 실력있고 축구에도 조예가 깊은 교원들을 일반

과목교원으로 엄격히 선발배치하고있다. 실기교원들은 모두 20대, 30대의 젊은 교원들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공화국의 전문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실력가들이다.

현재 학교에는 전국각지에서 엄선하여 입학시킨 수백명의 학생들이 나이에 따라 소학반, 초급반, 고급반에서 공부하고있는데 수학, 물리 등 기초과목을 비롯한 일반과목교육과 축구실기교육을 다같이 받고있다.

다기능화된 교실에서 학생들은 전자칠판과 투영기, 촬영기, 콤퓨터, 액정TV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리용하여 모든 학과목들에 대한 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받고있다.

학교에는 7개의 인공잔디축구장과 계절과 기후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껏 훈련할수 있는 실내훈련장도 마련되여있어 학생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조화성훈련과 률동훈련을 비롯한 축구기초훈련과 육체훈련들을 규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교원들은 최신 체육과학기술자료들을 자체로 번역하고 세계적인 강팀들의 경기들을 분석하면서 우리 식의 훈련수단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하여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실현하고있다.

정말이지 아늑한 교실과 실력높은 교원들, 푸르른 축구훈련장들, 훌륭한 생활조건과 높은 사회적관심, 이 모든것과 함께 축구신동들의 애국의 마음도 한뽐두뽐 자라고있다.

한없이 따뜻하고 눈부신 해빛아래서 자기들의 아름다운 희망과 꿈을 꽃피워가는 축구신동들의 가슴속에는 어서 빨리 커서 축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굳은 결의가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２０２３년 국제력기련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２０２３년 국제력기련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귀국하였다.

까타르의 도하에서 지난 ４일부터 １４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２６개, 은메달 １０개, 동메달 ４개, 도합 ４０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이번 경기대회 나라 및 지역별메달순위에서 １위를 차지하고 남, 녀단체컵을 쟁취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방은철, 리청송선수들은 남자 ５５kg급, ８１kg급경기에서, 원현심, 리숙, 송국향, 정춘희선수들은 녀자 ４５kg급, ６４kg급, ７１kg급, ７６kg급경기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１위를 하고 ３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리수연선수는 녀자 ５５kg급경기 끌어올리기와 종합에서, 박명진, 리원주선수들은 남자 ６１kg급, ６７kg급경기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리성금, 강현경선수들은 녀자 ４９kg급, ５５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특히 녀자 ６４kg급경기에 출전한 리숙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１４６kg을 들어올리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높이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을 １９일 평양역에서 체육상 김일국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라.》, 이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개척자이며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였던 한덕수(1907. 2－2001. 2.) 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한생토록 간직한 신조였다.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시기인 1907년 2월 18일 경상북도 경산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릴 때부터 나라없는 설음을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안고 20살에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그에게 차례진것은 로동판에서의 가혹한 고역이였다.

남달리 민족적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이역에서 피눈물나는 망국노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생존을 위하여 맨 앞장에서 투쟁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일제와의 피어린 투쟁을 벌리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소식에 접하고 크나큰 희망과 신심에 넘쳐 로동운동을 과감히 벌리였다.

조선이 해방(1945. 8.)된 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사업에로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1948. 9.)을 계기로 재일조선인경축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한 그는 그해 12월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날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한몸바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운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촉을 받은 일본반동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르는 재일동포들의 단합된 힘에 겁을 먹고 재일조선인운동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탄압하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그는 조선사람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더라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며 일본의 민주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계를 강화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조국의 통일과 륭성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을 벌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주체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로 재일조선인 애국자들과 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마침내 주체44(1955)년 5월 25일 일본 도꾜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결성하였다. 그때부터 46년간 의장으로 사업하면서 그는 총련을 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꾸리는데 모든것을 다바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련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총련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계층별단체들과 수많은 부문별사업체들을 망라한 재일동포들의 대중적애국조직으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그는 재일동포들속에서 조선말과 글을 배우고 쓰는 운동, 조선사람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내외반동들의 민족동화책동을 막고 재일동포들이 대를 이어 민족성을 지켜나가도록 하였으며 일본땅에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웠다.

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전문시인도 아니였지만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를 비롯한 수십편의 노래를 창작하였으며 동포사회에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흘러넘치게 하였다.

그는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 명예원사, 교수, 박사로서 조국과 민족이 아는 애국자, 저명한 해외교포활동가로 값높은 인생행로를 수놓아왔다.

그의 유해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으며 수도에는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이 있다.

《윤석열퇴진으로 평화를 지켜내자!》

윤석열역도퇴진 第69차 초불집회와 시위 전개

외세에 추종하며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살인적인 악정으로 민중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윤석열역도를 기어이 퇴진시키기 위한 각계층의 대중적항쟁이 괴뢰 전 지역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다.

서울에서 《윤석열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민중행동, 비상시국회의, 민주로총을 비롯한 8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적초불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결성하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각계층 군중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괴뢰전역에서 《윤석열퇴진으로 평화를 지켜내자!》, 《민의를 외면한채 거부권을 람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역천자, 망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등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16일 서울, 부산, 울산, 제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각계 단체들이 시국집회들을 열고 윤석열역도퇴진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갈것을 선언하였다.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의 집권행적을 목격하는 민중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하면서 민주, 인권, 정의, 평화, 민생, 복리라는 가치들이 윤석열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1년반이 넘도록 민중은 권력에 눈먼 무능한 윤석열이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지 똑똑히 보고있다고 절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에 전운마저 감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윤석열이 취임전부터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탄내고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일방에 치우친 외교는 경제와 민생을 말아먹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윤석열이 법도, 민중의 눈도 개의치 않는자라고 하면서 민중을 거스르는것은 하늘을 거스르는것이다, 역천자는 망한다고 성토하였다.

민중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고있는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운명을 다하였음을 깨달아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그들은 각계 민중이 힘을 모아 불의하고 무능한 윤석열, 외세에 추종하는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검찰독재를 몰아내자, 민생을 구원하자,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자, 독선과 위선에 맞서 전지역적인 저항행동을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서울일대에서 제69차 초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였다.

맵짠 추위속에서도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초불들과 《무능력한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 등의 선전물들을 들고 윤석열역도와 그 녀편네인 김건희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반드시 2024년 윤석열탄핵의 봄을 만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초불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한 투쟁참가자들은 미국, 일본에 굴종하여 전쟁참사와 외교참사, 민생참사를 매일매시각 빚어내고있는 윤석열일당의 죄행을 성토하였다.

윤석열일당에 의해 전쟁위기와 민생파탄, 부정부패행위가 일상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민중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고 웨쳤다.

그들은 윤석열일당이 독재기구를 통해 저들의 부패행위를 비호조장하고있는데 대해 폭로단죄하고 주가조작수사결과 김건희와 그 어미의 부정거래가담사실이 다 드러났지만 단 한번도 수사받은적이 없다고 하면서 《국회》는 김건희의 죄목을 밝히고 특검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윤석열일당을 모조리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민중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윤석열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일당이 심판받는 순간까지 초불집회가 꺼지지 않는 초불투쟁으로 될것이다고 하면서 초불투쟁에 각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안산초불행동, 부안초불행동, 부천초불행동 대표들이 공동으로 투쟁결의문을 랑독하였다.

결의문은 김건희특검은 이제 현실로 되고있다, 초불항쟁은 마침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민중의 강력한 초불투쟁은 고조되고있다, 김건희특검을 앞두고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포함한 보수적페세력들은 자중지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고있다, 위기탈출을 모색하며 허둥대고있지만 탈출구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또다시 거부권행사를 획책하고있지만 더 큰 저항에 직면할것이라고 하면서 결의문은 윤석열이 현재의 통치위기에서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조선반도 전쟁위기, 정치공작 등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예상된다, 초불민중은 윤석열의 그동안의 집권행적에서 집권유지술책을 꿰뚫고있다, 민중의 윤석열탄핵열풍은 더욱 거세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윤석열의 몰락은 기정사실이다, 초불민중의 승리는 명백하다, 초불의 힘으로 기어이 승리의 2024년을 맞이하자고 하면서 결의문은 남녀로소 각계 민중이 굳게 뭉쳐 윤석열탄핵을 위한 거대한 초불바다를 이루어낼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사기군 윤석열을 탄핵하라!》,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후예 검찰쿠데타 윤석열을 몰아내자!》, 《군사깡패 전두환의 후예 국힘당을 해체하라!》, 《명품뢰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부정부패 국정롱락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조작 경력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대국민사기 참사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시위참가자들은 각계의 초불항쟁에 의해 윤석열은 통치기반이 무너지는 속에 지리멸렬할것이다, 《국민의 힘》의 분렬은 더 커질것이며 윤석열일당은 총선거를 전후로 해서 붕괴될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악의 윤석열독재정권을 끝장내자》라는 구호밑에 괴뢰지역 도처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이 로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민의에 도전하는 윤석열의 부당한 로동악정을 규탄하고 검찰독재의 폭압에 맞서 로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단체들은 권력과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법우에 군림하면서 민중을 암흑에로 몰아넣는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 청년학생, 종교계, 시민사회, 진보정당들과 련대하여 민중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로동자들이 반윤석열투쟁의 주력대오가 되여 각계 민중과 함께 항쟁과 심판의 날과 달을 만들어낼것이다. 자주를 포기하고 굴종을 일삼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윤석열퇴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이다고 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피뢰언론들은 각계의 투쟁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윤석열역도의 사대매국적이며 살인적인 폭정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의 분출이

다. 반윤석열투쟁에 로동계까지 합세하면서 대중적인 투쟁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고 밝혔다.

김건희의 뢰물수수사건에 대한 수사 시작

최근 《국제신문》,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괴뢰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인터네트언론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김건희의 뢰물수수혐의에 대한 괴뢰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였다고 한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 11월 27일 《유튜브》통로를 통해 김건희가 윤석열역도의 《대통령취임식》이후 값비싼 명상품가방을 뢰물로 받는 동영상을 공개하여 역도와 일가족속들의 권력형부정부패행위를 폭로하였다.

지난 6일에는 《김건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지하층의 한 사무실에서 목사로부터 300만원가치의 가방을 받았는데 이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된다.》, 《윤석열이 이러한 부패사실에 대해 이미 보도되여 알고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것도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다.》고 지적하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힐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언론들은 각계층속에서 《김건희관련 부정부패의혹이 여러 차례나 제기되였지만 대통령실은 한번도 제대로 해명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김건희 명상품가방수수가 뢰물혐의 성격으로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고 전하였다.

지난 15일 괴뢰검찰은 《김건희 명상품가방수수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통일주제작곡가 윤이상



도이췰란드의 킬문화상(1971년), 베를린음악대학 명예교수(1972년), 튀빙겐대학 명예철학박사(1985년) 등의 학직과 학위로 세계음악계에 명성을 날린 해외동포 윤이상선생(1917. 9. 17-1995. 11. 4.)은 조국인민들속에 통일주제작곡가로 널리 알려져있다.

실내관현악 《락양》(1962년), 플류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곡 《영상》(1968년), 가극 《심청》(1972년), 첼로협주곡(1976년),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1981년),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1987년), 교향시곡 《화염속의 천사》(1994년) 등 선생은 생전에 세련되고 원숙한 작곡기법으로 겨레의 민주정신과 념원이 반영된 100여편의 음악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작품들은 오늘도 조국인민들속에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있으며 민족의 넋을 안고 통일위업에 바쳐진 선생의 창작활동과 생애에 대해 감회롭게 추억하게 한다.

1917년 9월 17일 남조선 경상남도 충무시의 한 선비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17살때부터 10년간 경성과 해외에서 고학으로 첼로, 음악리론, 작곡 등을 배웠다.

주체45(1956)년부터 2년간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에서 음악리론과 작곡을 배운 그는 오래동안 도이췰란드에서 음악대학의 교수, 작곡가로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많은 음악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두차례에 걸쳐 국제현대음악축전에 입선하여 세계현대음악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자기의 음악에 전통적인 조선민족고전음악을 구현하기 위해 모색하였다.

그는 동양음악의 정서를 서양의 음악표현수단과 기법으로 형상한 자기식의 독특한 현대음악을 창조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뉴대를 이어주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현대음악》의 창작기법우에서 민족음악을 발전시킨 그의 창작적기량은 세계음악계의 인정을 받게 되였다.

그후에도 그는 조선의 력사와 음악,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을 탐방하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그의 창작활동을 새롭게 추동한 계기가 있었다.

일찍부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선생은 1967년 6월 이른바 동부베를린사건으로 랍치되여 남조선으로 끌려가 2년간 옥중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창작적견해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예술가는 정치와 유리된 순수한 예술을 창조하는것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견해에 종지부를 찍고 그 어떤 예술가이든 정치를 떠난 예술의 창조도 존재도 있을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견해가 그의 뇌리를 쳤다.

그의 사상적견해는 그대로 작품에 반영되였다.

오보에독주곡 《피리》, 첼로협주곡, 알토플류트독주곡 《살로모》 등에서는 그가 옥중에서 겪었던 고초와 평화의 념원을 담았고 합창곡 《밤이여 지새라》, 가극 《심청》과 같은 성악작품들에서는 남녘인민들의 비참상을 절절하게 반영하였다.

그후 1980년 남조선에서 일어난 광주인민봉기는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창작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그는 온 심혈을 기울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피타게 절규하며 파쑈독재의 아성을 맞받아 거연히 일떠섰던 광주인민의 넋을 담아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광주인민봉기 1돐을 계기로 창작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는 주체70(1981)년 5월 8일 도이췰란드의 쾰른시방송국 관현악단의 첫 연주로 해외교포들은 물론 유럽음악계와 사회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다음해 8월에는 평양에서 첫선을 보이였다.

이국에서 창작활동을 벌리던 나날에 윤이상선생은 항상 고국을 그리였으며 분단된 겨레의 비운을 두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두고 가슴저리게 통탄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작품들에 반영하였다.

주체76(1987)년 그는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숙망을 폭넓게 구가한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를 완성하여 내놓았다.

그는 작품의 창작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왜 나는 이 교성곡을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로 지었는가. 우리 땅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다. 우리 땅은 아무도 침범할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민족은 갈라질수가 없다. 단합, 화해, 자주, 평등, 평화, 이런 귀중한 요소들이 우리 민족앞에 주어진 지대한 과업이고 목표이며 그때문에 《나의 민족이여》라고 호소형으로 표현하였다.

교성곡은 통일대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작곡가의 굳센 신념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예술적인 높은 기교속에서 형상되였다.

윤이상선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애국적인 음악가의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부부를 만나주시고 해외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린 그를 민족의 재간둥이, 예술계의 보배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두해전에 그가 조국에 가지고 온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들어보았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이미전에 작곡한 가요들을 모두 발굴하도록 해주시고 초기작품들과 《민주련합가》, 《락동강》 등 가요들로 윤이상음악회를 조직하도록 해주시였다.

주체80(1991)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으로 활동한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성업에 심신을 다 바치였다.

그는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발기하고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일음악회가 조국력사에 뜻깊은 장을 기록할 민족의 축전으로 되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선생

은 조국통일상과 국기훈장 제1급 등을 받았다.



제20회 료녕성조선민속장기대회가 심양에서

12월 16일 심양시조선족장기협회가 주관하고 후원한 제20회 료녕성조선민속장기대회가 심양시 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대회에 심양시, 단동시, 안산시, 대련시, 료양시, 철령시 조선족장기협회 40여명의 선수들이 참석하였다.

개막사에서 심양시조선족장기협회 최일동회장은 립동이래 제일 추운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대회에 참석해준 각 시 장기협회 선수여러분들께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대회 주관을 맡겨준 료녕성조선족기류협회 류상룡회장, 대회장소를 마련해준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박석호관장, 심양시조선족장기협회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물심양면 많은 배려와 경제적인 후원을 해준 리성국총재 등 여러분들께 거듭 심심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동호인 여러분들과 일심협력하여 우리 조선민속장기보급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추운날씨를 잊고 장기대회는 뜨겁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선수들의 대국이 펼쳐졌다.

일점을 다투는 치렬한 경쟁끝에 프로조에서는 우승에 류상룡, 방철학, 김정봉, 리춘삼선수가 2등에서 4등을, 아마조에서는 우승에 최일동, 김동일,리대이, 김기수, 리성국, 최룡수, 현일룡, 리동수선수가 2등에서 8등까지의 영예를 따냈다.



대련옹달샘배움터 고신원구 분교 김치제작 체험 행사 진행

“내 손으로 만든 김치 참 맛있어요!”



김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많은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는 전통이 이어져오곤 했지만 오늘날 날로 바쁜 일상에 부대끼는 젊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직접 담그는 일은 사치아닌 사치로 되고 있다.

12월 2일, 대련옹달샘배움터 고신원구 분교는 날로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전통음식 김치제조법을 되새기고저 대련시무형문화재 조선족김치제작기예 대표성 전승인이며 30여년의 김치공장력사를 갖고 있는 대련광대식품유한회사 송연자 사장을 초청해 김치의 유래, 제작과정을 학습했다.

이번 행사에 오프라인 반급 애솔1반, 청솔1반, 청솔2반, 한솔반과 온라인 반급 애솔2반 도합 5개 반급 80여명의 어린이들이 김치제작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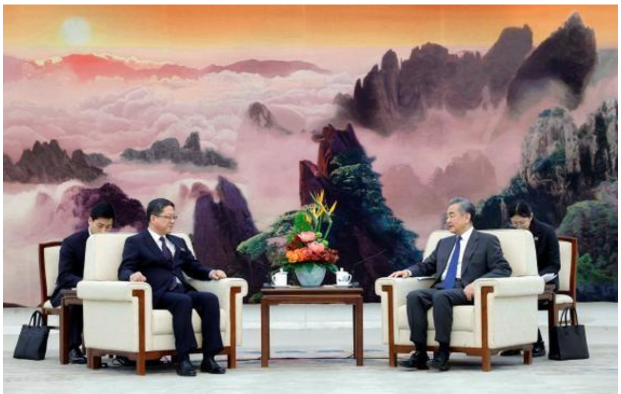
오프라인반급 어린이들은 배추잎 하나하나에 빨간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 만드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 특히 온라인반 학생들은 상황상 직접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는 없었지만 허문자 교원, 김순이 교원과 함께 사상 최초로 "온라인 김치제작 체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엄마 아빠가 준비해준 재료로 집에서도 현장 못지 않은 김치제작 체험을 했다.

옹달샘배움터 고신원구 분교 최미숙 부교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민족 전통음식을 료해하고 직접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은 대련광대식품유한회사에 고마움을 전한 후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옹달샘배움터가 조선족문화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며 여러 전통음식 제작행사를 자주 조직해 조선족 전통음식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산재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조중 두 나라 외교부문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를 만났다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가 18일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를 만났다.

담화에서는 두 당,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조중외교관계설정 75돐이 되는 2024년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하며 호상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해나가려는 립장들이 표명되였다.

담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룡남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손위동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의 단체, 인사, 해외연고자가족,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조선중앙통신}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2돐에 즈음하여 외국의 단체, 인사, 해외연고자가족,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우리 나라 주재 국제기구대표부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지진피해, 구제사업 추진

중국의 감숙성 림하회족자치주에서 １８일 리히터척도로 ６.２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발생후 ３０여차례의 여진이 관측되였다고 한다.

지진으로 １９일현재 감숙성과 청해성에서 １２０여명이 사망하고 ３００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４ ７８０채이상의 살림방과 도로 등 하부구조가 파손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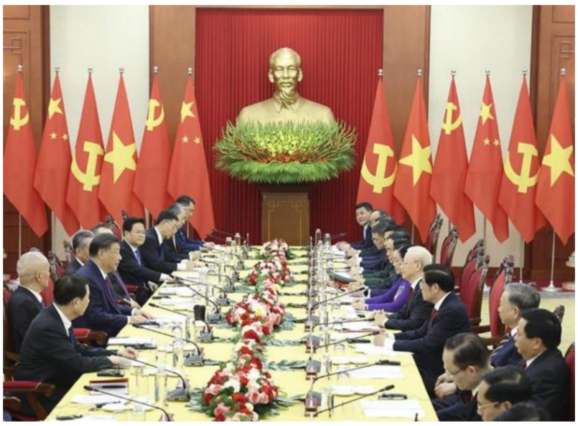
지진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습근평주석이 중요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는 중요지시에서 수색구조작업을 벌리고 부상자들을 제때에 치료하여 사상자수를 최대한 줄이며 파손된 전력, 통신, 교통, 난방 등 하부구조를 보수하고 피해군중을 안착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지방과 적극 협력하여 구조작업과 구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재해지역에 실무조가 파견되여 구제사업을 지도하고있으며 감숙성과 청해성에서 천막과 침대, 솜이불 등 구제물자를 피해지역들에 보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습근평, 웰남 국가주석 보 반 트엉과 회담 거행



현지시간 12월 13일 오전,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습근평은 하노이의 주석부에서 웰남 국가주석 보 반 트엉과 회담을 개최했다(신화사 기자 국붕 촬영).

하노이 1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손광용, 왕재): 현지시간 12월 13일 오전,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습근평은 하노이의 주석부에서 웰남 국가주석 보 반 트엉과 회담을 개최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제 나는 응우옌 푸 쫑 총서기와 함께 전략적 의의가 있는 중국-웰남운명공동체 구축을 선포하여 손잡고 량당, 량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했다. 중국과 웰남 량국 인민은 국가독립과 민족해방 투쟁에서 어깨겯고 싸웠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사업에서 상호 지지했는바 시종 서로 돕고 지켜주며 어려움을 같이하면서 '동지와 형제'의 우정을 맺었다. 잔략적 의의가 있는 중국-웰남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은 량당, 량국 로일대 지도자들의 공동의지의 전승이고 지나간 파란만장한 세월에 대한 경의이고 량국 혁명우의에 대한 발양이며 량당, 량국 고위층이 중국과 윁남의 장원한 발전대국과 세계사회주의력량 단결의 잔력적 전반국면으로 출발하여 내린 중대한 력사적 결책으로서 중국과 윁남이 각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수요에 부합되고 량국인민의 공동리익에 부합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쌍방은 중국-윁남운명공동체 구축의 력사적 필연성, 전략적 의의, 현실적 요구와 국제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치적 상호 신임을 더욱 높이고 안전협력을 더욱 실속 있게 하며 실무적 협력을 더욱 깊이하고 민의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다자조률배합을 더욱 밀접히 하고 분쟁에 대한 관리통제 및 해결을 더욱 잘하는 6대 목표를 둘러싸고 량국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끊임없이 부여하여 손 잡고 전략적 의의가 있는 중국-윁남운명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추동함으로써 량국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인도를 강화하여 중국-윁남운명공동체 구축의 전략적 공감대를 응집시켜야 한다. 량당, 량국 고위층은 계속 신축성 있는 방식으로 깊이 있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상호 학습, 상호 귀감을 확대하며 당관리, 국가관리 경험교류를 심화하여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수준을 함께 향상시킴으로써 각자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해야 한다.

둘째, 단결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윁남운명공동체 구축의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윁남은 모두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국가로서 정치제도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사업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과 사명이다. 쌍방은 단결을 강화하고 개방, 공영을 견지하며 외부의 침투, 파괴 획책을 함께 방범하고 막아냄으로써 세계사회주의력량을 장대해지게 하고 인류평화진보사업을 추동하는 데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한다.

셋째, 호혜협력을 심화하여 중국-윁남운명공동체의 리익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 쌍방은 최상위설계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창의와 '량랑일권(两廊一圈)'의 전략적 맞물림 협력계획강요를 잘 락착하며 기초시설의 상련상통을 다그치고 윁남 량질농산물의 중국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록색발전 등 령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량국 실무적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확장해야 한다.

넷째, 민의인도를 강화하여 중국-윁남운명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중국-윁남 민간친선을 체계적 공정으로 삼아 틀어쥐고 량당, 량국의 전통적 친선 선전교육을 추진하며 문화, 관광, 지방협력 등 플랫폼을 잘 리용하여 량국인민 특히 청년들간의 교류와 왕래를 위해 더욱 많은 교량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료해와 친선적 감정을 증진해야 한다.

다섯째, 분쟁을 타당하게 관리통제하여 중국-윁남운명공동체의 안정적 예기를 높여야 한다. 중국과 윁남은 모두 남해의 중요한 연안국으로서 남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공동리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책임도 있다. 중국측은 윁남측과 소통과 조률을 강화하고 쌍방이 모두 접수할 수 있는 해상문제의 장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 각측이 하루속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남해행위준칙'을 달성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보 반 트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 국가주석의 윁남에 대한 국빈방문은 윁남 당, 국가와 인민이 오래동안 바라온 대사이며 윁남-중국관계에서의 중대한 력사적 사건이다. 어제 량당 총서기는 전략적 의의가 있는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데 일치하게 동의했다. 이는 윁남-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방향을 가리켜주었는바 반드시 윁남-중국관계가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도록 추동할 것이다. 윁남과 중국 로일대지도자들이 맺은 깊고 두터운 전통적 친선은 국제풍운의 시련을 이겨냈는바 량국인민의 공동재부이다. 오늘날 국제형세가 한창 복잡한 변혁을 겪고 있는데 윁남과 중국 량국은 모두 관건적 발전단계에 처해있다. 량당, 량국의 신임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량국 사회주의사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량국인민의 공동념원이다. 응우옌 푸 쫑 총서기와 습근평 총서기의 대체불가능한 전략적 인도 아래 윁남-중국관계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면적이고 심각하고 친선적인 적이 없었다. 윁남측은 습근평 주석의 이번 방문이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 윁남 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재차 세계를 향해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웰남과 중국의 관계는 반석과 같이 튼튼한바 그 어떤 외부세력의 리간질과 간섭 및 파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보 반 트엉은 중국측이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의 령도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이 반드시 20차 당대회에서 확립한 각항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국의 발전과 성공은 웰남에 지대한 고무와 지지를 주게 될 것이다. 웰남측은 량당 총서기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시달하고 량국의 사회주의제도가 같고 리상과 리념이 비슷한 등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켜 당관리, 국가관리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량국의 정치, 경제무역, 인민, 안전 등 령역의 실무적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정치안전을 수호함으로써 공업화, 현대화 건설에 조력할 용의가 있다. 웰남측은 시종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시행하며 중국의 통일대업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웰남측은 상호 존중, 협력공영의 정신으로 해상분쟁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여 웰남-중국운명공동체건설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일련의 글로벌창의는 대국 큰당의 책임담당 및 중국의 국제 발전과 협력에 대한 중요한 인도를 체현했는바 웰남측은 이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측과 국제협력을 밀접히 하여 세계 평화, 안정과 인류 진보 및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

회담후 습근평은 부인 팽려원과 함께 보 반 트엉 부부가 거행한 환영오찬회에 참석했다.

채기, 왕의, 왕소홍 등이 상기의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에서 남경대학살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장의식 진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13일 남경시에서 2023년 남경대학살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장의식을 진행하였다.

장의식은 남경대학살피해자기념관 집회광장에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일본침략자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남경대학살피해자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으며 제단에 화환들을 진정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장의식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남경대학살피해자들과 일본침략자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동포들,항일전쟁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혁명선렬들과 민족적영웅들,중국인민과 함께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국제주의전사들과 외국의 벗들을 추억하며 평화적발전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려는 중국인민의 숭고한 념원 그리고 력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하려는 확고한 립장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서 남경대학살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장의식을 엄숙히 거행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새로운 로정에 들어선 오늘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령도를 견지하고 위대한 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중국식현대화를 부단히 추진하고 확대발전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연설이 끝난 후 남경시청소년대표들이 《평화선언》을 랑독하고 사회각계 대표들이 《평화의 종》을 울렸다.(베이징 조선중앙통신)

중국 신강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비난 배격

유엔주재 중국상임대표부 대변인이 신강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15일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신강관련문제에서 중국의 민족 및 종교정책을 헐뜯으면서 중국내정에 간섭한것과 관련하여 대변인은 이를 사실적근거가 전혀 없는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현재 신강에서 사회가 안정되고 인민생활이 개선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에서는 종교의 정치화,교회추문 등의 혼란현상이 가는 곳마다에서 나타나고 종교차별 및 박해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엄중히 침해당하고 75%의 미국이슬람교도들이 심한 차별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삿대질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거짓말과 궤변을 통해 《신강으로 중국을 억제》하려고 시도하고있는데 이것은 기필코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격도 싸고 70킬로메터 거리도 거뜬!"

이제는 '수소 자전거' 시대

수소 자전거가 시민들의 록색 출행을 념두에 둔 새로운 선택으로 되고 있다.

진소룡(40세)은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수소에너지 자전거를 리용하고 있다. 그의 고향 산서성 곡옥현에는 100대의 수소에너지 공유자전거가 은행, 광장, 공원, 쇼핑몰 등에 배치돼있고 휴대전화로 QR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진소룡은 "30분에 50전밖에 되지 않고 항속거리도 70킬로메터에 달한다."며 "수소에너지 자전거는 힘을 들이지 않고 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소에너지 자전거를 개발한 영안행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는 록색 저탄소 환경보호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8년부터 수소에너지 산업에 진력했다.

이 회사 수소에너지시장부 판매총감 왕병은 강소성 상주시, 상해시 림항신구, 운남성 려강시 고성 등 지역에 수소 자전거를 대거 투입했다며 앞으로 북경, 심수, 무한 등 도시에도 배치할 예정라고 말했다.

왕병은 "우리 자전거는 충격, 화재 등 한계 테스트를 통과해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수소에너지는 미래 국가에너지 시스템의 구성 부분이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지난해 공동으로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21년－2035년)'을 발표하여 수소에너지의 청정 저탄소 특성을 충분히 발휘해 교통, 공업 등 에너지 사용 단말기와 에너지 고소모·고배출 산업의 록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여러 성에서 수소에너지 산업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1급 시장에 수소에너지 투자붐이 일면서 수소에너지 자전거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했다. 이를테면 강소성은 '수소에너지 보조자전거 통용기술 요구' 지역 표준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다. 11개 수소에너지 연구 및 생산 기업과 검측 및 인증 단위가 해당 표준 제정에 참여했다.

영안행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리사장 손계승은 "통일적인 표준 시스템은 수소에너지 자전거 산업의 규범화,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수소에너지련맹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판매량은 3367대, 보유량은 1만 268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국가에너지국 에너지절약 및 과학기술장비사 부사장 변광기는 "우리 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의 발전추세는 전반적으로 량호하며 제조, 저장, 수송, 사용 여러 면에서 기술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강삼각주, 주장삼각주, 환발해 3대 지역의 수소에너지 산업에는 군집화 발전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소에너지 자전거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처해있지만 업계 인사들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

다. 수소에너지 탄소제로 물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산서 천항수소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총경리 경지강은 현재 우리 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은 빠른 발전단계에 진입했고 수소에너지 자전거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응용으로써 향후 더 넓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최고치 경신! 올해 전국 량식 총생산량 1조 3908억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조사결과 2023년 전국 총 량식 생산량은 1조 3908억 2000만근으로 전년대비 177억 6000만근 증가하여 1.3% 성장해 9년 련속 1조 3000억근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전국 량식 파종면적, 단위 면적당 수확량 및 총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량식 파종면적은 118969천헥타르(178453만무)로 2022년 대비 636천헥타르(955만무) 증가하여 0.5% 성장했다. 그중 곡물 파종면적은 99926천헥타르(149890만무)로 2022년 대비 658천헥타르(986만무) 증가하여 0.7% 성장했다.

2. 전국 량식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845kg/헥타르(390kg/무)로 2022년에 비해 43.6kg/헥타르(2.9kg/무) 증가하여 0.8% 성장했다. 그중 곡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6419kg/헥타르(428kg/무)로 2022년 대비 40.0kg/헥타르(2.7kg/무) 증가하여 0.6% 성장했다.

3. 전국 량식 총생산량은 69541만톤(1조 3908억근)으로 2022년 대비 888만톤(178억근) 증가하여 1.3% 성장했다. 그중 곡물 생산량은 64143만톤(1조 2829억근)으로 2022년 대비 819만톤(164억근) 증가하고 1.3% 성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중국 최대 규모 륙상풍력발전기지 전용량 발전 가동

□힝간맹 12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용): 12월 10일, 중국 최초의 사막, 고비, 황막 지역을 중점으로 하는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중 하나인 중국광핵그룹 힝간맹의 300만킬로와트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전용량 접속을 실현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큰 륙상풍력발전기지가 되였다.

내몽골 힝간맹 흐르친우익전기와 흐르친우익중기 경내에 위치한 중국광핵그룹 힝간맹 300만킬로와트 풍력발전프로젝트는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1단계 100만킬로와트 풍력발전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25일, 2단계 200만킬로와트 풍력발전프로젝트의 승압소가 단번에 대전(带电)작업에 성공했고 12월 10일에는 2단계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완성하고 조업에 들어섰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광핵그룹 힝간맹 300만킬로와트 풍력발전프로젝트는 701대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100억킬로와트시 이상의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준석탄소모와 이산화탄소배출을 각각 296만톤, 802만톤 줄일 수 있는데 이는 34만 5,000무의 나무를 심는 효과에 상당하다. 프로젝트 전반 수명주기내 힝간맹지역에 기여한 세금은 50억원을 초과하여 뚜렷한 경제효익과 생태환경보호효익을 보여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최저기온 -41.4℃! '중국에서 가장 추운 마을'

11일, 한파의 영향으로 '중국의 가장 추운 마을'이라고 불리는 흑룡강성 대흥안령 호중구 최저기온은 -41.4℃까지 떨어져 올겨울에 들어선 이래 가장 추운 하루를 맞이했다.

11일 아침 일찍부터 밖에서 산책하는 많은 호중구 주민들은 두꺼운 패딩과 솜옷을 입었고 모자와 마스크에는 두꺼운 서리가 꼈다.

"오늘은 분명히 기온이 떨어진 것이 느껴진다. 두부와 건두부를 이불로 잘 덮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언두부가 된다." 두부를 파는 조광희는 매일 실외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



적 긴데 11일에는 더 두꺼운 겨울옷과 신을 신고 집에서 만든 양가죽 온수주머니를 직접 가지고 나와 손을 녹였다.

대흥안령 호중구기상국 국장 제진양은 11일 8시 35분, 호중구 백산풍경구 기상자동관측소에서 측정한 최저기온은 -41.4℃로서 올해 겨울에 들어선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이였다고 소개했다. 한파의 영향으로 미래 3일 동안 호중구의 최저기온은 -40℃ 좌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기상국은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방한보온에 주의하여 동상을 입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41.4℃의 저온은 '중국의 가장 추운 마을'에 아름다운 무송을 가져다주었다. 도시진 근처의 후마강에는 끊임없이 '열기'가 올라왔고 량안의 나무와 마른 풀에는 얼음 결정이 가득 맺혔는데 해빛 아래에서 은빛가지와 옥줄기로 단장되여 마치 동화세계에 온 것 같았다.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이 따뜻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중구 부동산 정비와 난방쎈터는 보장예비안을 가동하여 석탄공급량을 늘리고 연소부하를 높여 난방수온을 높였다. 호중구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교통경찰도 근무순라강도를 높여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보장했다.

후중구는 대흥안령 이레후리산 북쪽기슭에 위치해있는데 매년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80일 이상에 불과하며 도시진의 력대 최저온도는 -53.4℃에 달하고 매년 -40℃ 이하의 날씨가 30일에 달해 '중국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불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남성에게도 갱년기 있어! 몸에 이런 신호 나타나면 주의해야

갱년기라고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녀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 생리단계를 거치고 생리적, 심리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남성갱년기증후군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호르몬수치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말한다. 테스토스테론함량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데 이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남성호르몬으로 근육의 강도와 질을 유지하고 골밀도와 강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등 역할을 일으킨다. 테스토스테론 위주의 호르몬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남성갱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갱년기 발병률이 높은 년령은 보통 40세에서 55세 사이로서 개인 간에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남성에게 신체적, 심리적 방면에서 일련의 나쁜 증상이 나타나게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성기능저하, 성욕감퇴, 근력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서적으로 갱년기 남성은 짜증,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파동을 느낄 수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차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수면질도 영향을 받아 불면증, 다몽증 등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남성들이 갱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가?

첫째, 합리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며 고지방 및 고당류 식품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한다.

둘째, 산책, 조깅, 수영 등 적절한 유산소운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수면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밖에 명상 및 호흡련습과 같은 심리조절기술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바 가족, 친구와 소통하고 필요할 때 전문 심리의사와 상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성은 갱년기로 인한 변화에 더 잘 대처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갱년기는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과정으로서 갱년기의 증상과 예방 조치를 리해하는 것은 자못 중요하다. 남성은 긍정적인 생활방식과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이 단계를 더 잘 극복하고 심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

올해 동북범새끼 63마리 탄생! 중국 최대 동북범사육기지 탐방

흑룡강성 할빈에 위치한 중국 횡도하자고양이과동물사육쎈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동북범인공사육기지이다. 일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이 조직한 집중취재단은 이곳을 찾아 대표종인 동북범이 생물다양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작용을 료해했다.

먼저 사육기지의 새끼호랑이 '보육실'을 찾아가니 귀여운 호랑이새끼들이 단잠에 빠져있었다. 올해 사육쎈터에는 63마리의 새끼호랑이가 탄생했는데 생존률이 86%에 달했다.



이 호랑이새끼 가운데서 우수한 개체는 동북범국가급보호종원 핵심종군체에 보충진입한다.

중국 횡도하자고양이과동물사육쎈터 사육수의부 서해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육과정에서 동북범을 위해 맞춤제작한 분유를 선택하여 그들의 영양을 보장하고 있다. 돌봄방면에서는 매일 4~6차례 인공수유를 진행한다. 또한 매일 새끼호랑이에 대해 배변자극, 배뇨자극을 하여 그들의 신진대사를 돕는다.

현재 우리 나라 야생동북범 개체규모는 지속가능한 생존의 수요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생태환경의 개선과 회복은 동북범이 산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년래 흑룡강성은 구조차원에서 일련의 동북범, 동북표범 등 야생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자연보호구를 건설했고 천연림 보호와 습지 보호 회복공정항목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천이확산회랑을 복원하고 서식지와 생태회랑 서식지 조건을 개선했으며 각종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불법범죄행위를 타격함으로서 동북범, 동북표범 등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가 효과적인 보호와 회복을 가져오게 했다.

국제소식

guojixiaoxi

실패하고있는 미국의 대수리아정책

얼마전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한 고위관리를 사우디 아라비아주재 대사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２０１１년 수리아위기발생후 단절되였던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가 복구되였음을 국제사회에 다시금 각인시킨 계기로 되였다.

수리아는 올해 ５월에 아랍국가련맹 성원국지위를 회복하였다. 수리아를 둘러싼 정치정세의 흐름은 이 나라의 평화와 령토완정을 실현하고 피난민들의 안전한 귀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그것은 수리아의 현 정권을 붕괴시키려던 미국에 있어서 치명적타격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２０１１년에 뜌니지에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는 《색갈혁명》바람을 온 아랍세계에 불어넣으려고 획책하였다.그를 통해 중동의 정치지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다시 그리려 하였던것이다.미국은 수리아를 《색갈혁명》의 주되는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나라에 정치적혼란과 사회적불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국의 모략책동으로 하여 수리아는 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그 과정에 아랍국가련맹의 성원국지위가 동결되고 여러 아랍나라와의 외교관계도 단절되였다.

미국은 아랍세계에서 수리아의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되자 각종 기회를 리용하여 수리아위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해나서기 시작하였다.수리아정부가 반대파세력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는 날조자료를 내돌리고 《응징》을 운운하면서 이 나라를 여러 차례 공습하였다.

또한 미국은 수리아정부군이 로씨야무력과 함께 테로세력들을 몰아내며 전과를 올리자 《반테로전》을 구실로 이 나라에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반정부세력을 사촉하여 대립과 충돌을 더욱 격화시켰다.

수리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간섭과 엄혹한 자연재해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령토완정을 이룩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수리아의 １０여년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은 아랍세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정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수리아에 있어서 아랍국가련맹에로의 복귀는 사변적인 일이다.이것은 수리아정부의 대내외정책의 승리인 동시에 이 나라를 아랍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던 미국의 대수리아정책이 실패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은 아랍국가련맹이 수리아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동맹국들이 이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것을 반대하였다.

미국회의원들은 심지어 아랍국가련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수리아가 아랍세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하고 대외관계의 폭을 넓히고있는데 대해 환영하고있다.그것은 수리아뿐 아니라 모든 아랍나라들이 단합된 힘으로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발전을 이룩해나가는데 유익하기때문이다.

수리아가 아랍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있는것은 정의의 투쟁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국권을 수호하고 지역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해결하려는 아랍나라들의 지향과 의지를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로씨야대외정보국장 협동체나라들이 힘을 합쳐 미국과 서방에 맞설것을 주장

로씨야대외정보국장 쎄르게이 나리슈낀이 14일 제19차 독립국가협동체성원국 안전 및 정보기관 책임자협의회 참가자들과의 상봉석상에서 성원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과 서방의 책동에 맞설데 대해 강조하였다.그는 최근 민족분립주의 및 배타주의경향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독립국가협동체공간의 현존 권력체계들을 파괴하려는 서방집단의 책동이 증대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하였다.다극세계질서수립과정이 진척됨에 따라 독립국가협동체공간의 정치,경제,사회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가간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책동은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날로 약화되는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있으며 력사적분쟁 등을 더욱 격화시켜 이러저러한 나라 혹은 국가집단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은 힘을 합쳐 앵글로색손족의 구조파괴적인 《분할지배》전략에 대항하여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끝)

가자지대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적공격만행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칸 유니스시와 라파흐시 등 가자지대 남부에 무차별적인 공습과 잔인한 지상공격을 가하여 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40여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였다. 또한 북부와 중부에 대한 야수적인 공습으로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이래 1만 8 608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죽고 5만 59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유엔총회가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인도주의정화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야수적인 살륙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있다.(끝)

일본해안에 죽은 정어리떼가 밀려드는 이상현상 발생

일본의 홋가이도연안에 7일 죽은 정어리떼가 밀려드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국제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일본의 대중보도수단이 파도를 타고 홋가이도남부의 하꼬다떼시해안 백사장으로 밀려든 정어리사체가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차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 흡사 《물고기파도》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

현지주민들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정어리사체가 나타난것을 처음 본다고 하였다.

앞서 10월에도 구마모도현에서 수천마리의 정어리사체가 발견되였다.

정어리들이 갑자기 무리로 페사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론들은 일본당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량의 후꾸시마핵오염수를 지난 8월부터 태평양에 계속 방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멀지 않아 그 핵오염수가 인류에게 치명적인 후과를 미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수리아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략탈행위

수리아에 비법적으로 주둔해있는 미군이 이 나라에서 략탈행위를 일삼고있다.

수리아의 대중보도수단은 17일 미군이 40대의 유조차와 55대의 화물자동차를 동원하여 도적질한 원유와 밀을 이라크에 있는 저들의 기지로 실어내갔다고 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2022년 상반년에 수리아의 하루원유생산량의 80%이상을 절취하였으며 올

해 1월초에만도 원유와 밀을 60대의 유조차와 화물자동차로 빼내갔다고 한다.

이러한 강도적인 행위는 수리아에서 에네르기위기와 인도주의재난을 격화시키고있어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끝)

꾸바의 민족적영웅 호쎄 마르띠

몬까다병영습격후 반동들에게 체포된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재판정에서 한 연설 《력사는 나를 무죄로 선포할것이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들은 우리 손에 호쎄 마르띠의 저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감옥의 검열관들이 이 저서가 위험하다고 인정하였기때문이였다.》

아바나의 가난한 포병하사관가정에서 출생한 호쎄 마르띠(1853-1895)는 어릴 때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전락된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압제자들에 대한 분노심, 민족적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였다. 특히 노예제도의 페지와 독립을 요구하여 꾸바인민들이 일으킨 봉기는 그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극시 《아브달라》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전장으로 달려나가 용감히 싸우다 희생되는 주인공 아브달라의 형상을 통하여 압제자들에 대한 꾸바인민의 반항정신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극시는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중상을 입고 운명의 마지막순간을 보내는 주인공의 뜨거운 애국주의적감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

나의 형제들이 신성한 피 흘릴 때
이 시각에도 조국은 우리 힘 믿고
자유를 기다린다
싸우라! 투쟁하라!…
조국을 지켜 싸우다 죽는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

그의 창작활동에 위구를 느낀 식민주의자들은 그를 체포하여 에스빠냐로 끌어갔다.

그곳에서 호쎄 마르띠는 《꾸바의 정치감옥》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론문들을 발표하여 꾸바인민에 대한 에스빠냐통치배들의 가혹한 탄압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후 아바나로 돌아온 그는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지하조직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지하조직이 드러나 다시 체포되여 국외로 추방된 그는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특히 그는 정의의 필봉을 들고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1892년에 호쎄 마르띠는 꾸바혁명당을 조직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였다.

1895년 꾸바로 다시 돌아온 그는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꾸바인민들의 독립전쟁을 지휘하다가 전사하였다.

호쎄 마르띠는 그야말로 《실천의 시인》이였다.

그의 시는 잉크로 쓴것이 아니라 피로 쓴것이나 같다.

《나의 시는 상처에서 솟구치는 피의 분수와도 같다.》고 한 그자신의 말처럼 뜨거운 조국애와 격조높은 호소로 충만된 호쎄 마르띠의 시작품들은 꾸바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꾸바혁명문학의 초석을 이루게 되였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호쎄 마르띠의 동상을 건립하고 공화국의 최고훈장으로서 《호쎄 마르띠

훈장》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2)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보고서 발표

제 2 장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행위와 수단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수호하는데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개입하고 전지구적인 군사기지망을 구축하는것을 비롯한 유형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을뿐 아니라 동맹체계를 구축하거나 규정과 제도를 리용하는것을 비롯한 무형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으며 정세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입방식과 새로운 군사기술,새로운 작전개념 등도 적용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자기의 우세를 보호하는것과 동시에 임의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압함으로써 그 나라가 미국과 엇비슷한 력량으로 자라나 세계의 유일무이한 맹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1. 유형의 통제수단: 전쟁과 기지

전쟁과 군사행동은 미국이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프랑스력사학자 또마 라비노는 미국과 전쟁사이의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전쟁은 이미 이 나라의 력사에서 불가분리적인 한부분으로 되였다. 미국이 건국초기부터 줄곧 전쟁을 해왔다고 하기보다는 전쟁자체가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것이 나을것이다. 미국이 벌린 전쟁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태여났으며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의해 미래의 미국이 만들어질것이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형성되고 전쟁과정에 팽창되였으며 전쟁속에서 패권을 쥐였다.

지난 240여년간의 력사적과정은 미국독립전쟁,인디안정복전쟁,미국－메히꼬전쟁,미국남북전쟁,미국－에스빠냐전쟁,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조선전쟁,웰남전쟁,만전쟁,꼬쏘보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들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노린 전차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나갔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판도를 넓히고 전략적요충지들을 장악하였으며 세력범위를 확대하였다.

미국의 령토는 건국초기의 약 80만㎢로부터 지금의 약 937만㎢로 10배이상 늘어났다.

미국은 군사적개입과 정변조작,대리전쟁 등의 수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의 나라들을 《뒤동산》으로 만들었으며 중동을 비롯한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요충지들을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해상수송로와 관건적인 자원지대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하와이와 웨이크도 등 태평양상의 많은 섬들을 병탄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여 빠나마운하를 건설하였다.

또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과 함께 중국에서 리익을 분할하였으며 군대를 아프리카에 배치하고 군사행동을 통해 중요자원과 원료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진영들을 갈라놓고 자기와 다른것을 제거하고있다.

9.11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세계의 85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벌렸다.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정보국 등 기구들은 《적》을 부단히 만들어내고 비법적인 비밀행동으로 다른 나라 정부를 뒤집어엎었으며 미국을 반대하는 외국지도자들을 암살하였다.

단기전쟁,장기전쟁,세계대전,랭전,비밀전쟁,대리전쟁, 《반테로》 전쟁 등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확장하기 위한 련이은 전쟁은 미국을 하나의 스파르타국가로 만들어놓고 이 나라가 항구적인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고있다.

세계를 뒤덮은 군사기지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이다.

군사기지는 미국이 억제와 군사적간섭을 추구하기 위한 전연진지이다.

미국은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군사적패권을 북극에서 희망봉에 이르기까지,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현저히 늘어났다.

1940년 9월 미국은 파국에 직면한 영국에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리용하던 구축함 50척을 제공하는 대신 8개의 영국식민지에 있는 일부 해상 및 공군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에서 군사적배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야심을 보여준다. 1943년부터 1944년까지 미국의 군사계획작성자들은 해외기지체계수립을 계획하였다.

이 체계는 미국의 패권력량을 대서양과 태평양에로 확대하는것을 가상한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 미군은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약 2,000개의 기지와 약 3만개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차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은 미국의 《전략적전연》의 전초기지로 변하여 미국의 《실제적인 주권》범위를 구획지었다.

랭전시기 미국은 쏘련을 포위하고 억제하기 위해 쏘련과 될수록 가까운 지역들에서 많은 군대와 군사기지를 유지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정계는 의연 해외군사기지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해외군사기지들이 있어야 군대의 항구적인 동원상태를 유지할수 있을뿐 아니라 미국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방어지대를 형성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실례로 부쉬정부는 해외기지가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바마정부는 《전연지대에로의 기지이동과 미국군대의 전연배비는 의의있으며 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였다.

2001년 9.11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전지역에 강대한 군사기지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대륙의 심장부에 자기의 군사적,전략적,지정학적교두보를 꾸려놓았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점차 자기의 군사기지배비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규모가 작고 신축성있는 《전연작전기지》건설에 착수함으로써 랭전시기의 대규모군사기지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연작전기지》들은 꼴롬비아와 케니아,타이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건설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기지들을 보통 이전에는 미군의 군사활동이 덜 미치던 지역들에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들을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놓았다.

여러해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기지건설에 관한 협정과 부대의 지위확정에 관한 협정,안전협조조약을 비롯한 쌍무 혹은 다무적인 문건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세계적범위에서 군사기지

망을 구축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은 해외의 80개 나라와 지역에 750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령사관과 사절단의 수의 3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550억US$에 달한다.

2001년부터만 놓고보더라도 해외군사기지는 미국이 적어서 25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행동을 벌리는것을 지원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해외군사기지건설과 해외전쟁발발이 일종의 인과순환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군사기지가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또한 전쟁은 더 많은 군사기지를 요구한다고 인정하였다.

2. 무형의 통제수단:동맹과 규칙

동맹체계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유형》의 전쟁과 군사기지에 비해볼 때 미국이 수립하고 주도하는 동맹관계는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무형의 통제수단들중의 하나로 분류할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패권은 전지구를 뒤덮은 군사동맹체계가 뒤받침해주고있다.

미국이 군사패권을 쥐고 그것을 수호하는 주요방식은 바로 동맹을 뭇는것이다.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수립은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적극 돕고있다.

1949년 나토창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군사동맹을 뭇기 시작한 미국은 미국－필리핀,미국－일본 등 쌍무군사동맹을 무어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동맹망을 구축하였다.

랭전시기 미국의 세계적인 동맹체계는 미국이 쏘련과의 랭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랭전종식후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는 랭전종식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마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였다.

실례로 미국은 《나토전략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 나토의 직능을 집단적인 방어로부터 세계적인 간섭으로 바꿈으로써 저들의 세계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도구로 만들었다.

랭전종식후 미국이 개입한 일련의 해외전쟁과 9.11사건이후의 세계《반테로》전쟁에서 미국의 동맹체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저들의 세계적인 군사적배치를 유지하고 세계패권적지위를 수호하는데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군사동맹체계를 수립한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타산이 있다.

첫째로,군대주둔과 합동군사연습,군사원조 등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억제하자는것이다.

둘째로,동맹을 무어 전반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저들의 정치적리익과 안전리익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셋째로,동맹을 뭇는 또 다른 목적은 동맹국들을 견제하고 통제하자는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태평양사령부는 2011회계년도에 미군과 동맹국들이 참가한 도합 146차례의 군사연습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2020년에 도합 88차례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동맹체계는 《바퀴축－바퀴살》식의 국가간체계로서 미국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의정을 설정하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기의 패권과 권위를 형성하는것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미국,일본,오스트랄리아사이의 관계와 미국,일본,필리핀사이의 관계로부터 미국,일본,인디아,오스트랄리아 《4자안전대화》와 미국,영국,오스트랄리아 《3자안전동반자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쌍무동맹체계의 3각화와 다각화를 주도하면서 동맹국들이 이른바 잠재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인디아태평양동맹체계》수립에 전력을 다하고있는것은 동맹체계를 리용하여 지역의 전략자원을 통합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행동효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진짜목적은 저들이 주도하는 패권체계를 수호하는데 있다.

미국식규칙과 제도를 리용하여 미국의 우세한 군사패권적지위를 수호하고있다.

첫째로,수출통제이다.

수출통제조치는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고 확대하며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된다.

랭전시기 서방의 수출통제정책은 쏘련을 고립시키고 억제하며 최종적으로 붕괴시키는데서 보조적역할을 하였다.

100여년의 력사를 가진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은 1917년의 《적성국무역법》으로 거슬러올라갈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과 랭전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는데 그 목적은 상대방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유지하자는데 있었다.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제재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도시바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1980년대 일본 도시바기계회사는 쏘련에 9축수자조종반을 수출하였다.

미국은 이를 저들의 군사적우세와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시바기계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가지고 새세대전투기개발문제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양보를 받아냈다.

《도시바사건》은 동기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위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둘째로,군비통제이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랭전시기에 체결된 미쏘사이의 군축합의는 투명성을 높이고 쌍방의 핵충돌위험성을 낮추었으며 미쏘사이의 전략적안정을 강화하고 군비경쟁이 통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것과 함께 랭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군축의 핵심목표는 여전히 쏘련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하고 유지하는것이였다.

이전 미국무성 국제안보,전파방지담당 차관보 토마스 칸트리맨은 《군축합의는 미국의 리익에 대한 상대방의 위협을 제한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동시에 이 합의는 국가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다시말하여 군축합의는 미국이 한 양보나 다른 나라에 베푼 호의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촉진요소이다.》라고 말하였다.

군축제도를 신축성있게 활용한 결과 미국은 우선 기타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는 자금을 얻을수 있게 되였다.

실례로 1972년에 쏘련과 미싸일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수십억US$를 절약할수 있게 되

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과 같은 군축합의가 제공한 투명성과 사찰조치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군사력과 관련한 정보를 장악,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자기의 핵무력발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밖에 상대방의 우세한 분야의 발전을 최대한 제한한 동시에 미국이 우세를 차지한 분야에서 상대방이 이길수 없는 군비경쟁을 벌리도록 유도하였다.

실례로 미국과 쏘련이 1987년에 체결한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결코 해상기지 및 공중기지 중거리미싸일배비를 겨냥한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미국이 쏘련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우세와 지리적우세,동맹의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셋째로,국제법을 외곡리용하는것이다.

국제법이 저들에게 맞으면 써먹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것은 미국의 일관한 패권주의적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군사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된 실례로는 미국이 저들의 기준에 맞추어 유엔해양법협약(《협약》)을 외곡하고 대외적으로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미국은 1979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면서 이것이 《합법적인 상업무역과 미군의 전지구적인 기동성을 수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력을 투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는 미국이 남해에서 벌리고있는 《항행의 자유행동》은 미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존재를 유지할수 있는 주요방식들중의 하나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행동》을 벌릴 때마다 대형전투함선들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령해와 배타적경제수역,무리섬,해협 등 수역에서의 연해국들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고있으며 더우기 사전신청 및 통보와 관련한 연해국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함선들을 제 마음대로 타국의 령해에 들이밀어 군사적패권행위를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약》을 선택적으로 외곡리용하면서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는데 이것은 《강권은 곧 공인된 법칙》이라는 그들의 패권적론리를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에 관한 유엔선언으로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되였습니다.

조약문형식으로 되여있으나 유엔선언인것만큼 법적의무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포괄적인 인권문헌으로서 실천에서는 많이 활용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가관리에 참가할 권리,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 신앙의 자유, 법앞에서의 평등권, 피난처의 리용권, 국적을 가질 권리, 조국에 귀국할수 있는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소송상 권리, 결혼의 권리, 국가로부터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 등 민사상 권리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로동에 대한 권리,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 식의주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경제적권리와 인신불가침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 등 인신 및 문화적권리를 규정하고있습니다.

선언은 인간의 이러한 권리가 인종, 성별, 재산, 출신, 언어, 정치적신념,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과 보호를 중요한 국제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한 문건이며 국제적으로 인권유린행위의 범죄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인정하는 문건입니다.

그러나 선언은 사람이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라렬하고있을뿐 인권의 본질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약점도 가지고있습니다.

허균과 《홍길동전》

허균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작가, 학자이다. 한성의 량반가정에서 태여나 참찬의 벼슬을 지냈다.

그의 아버지 허엽과 두 형인 허성, 허봉, 누이 허란설헌과 그의 스승이였던 리달은 다 시와 문장으로써 당대에 이름을 떨친 문인들이였다.

허균의 성장과 창작에 많은 영향을 준것은 리달이였다.

리달은 당시 진보적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았으나 첩의 자식인것으로 하여 등용되지 못하였다.

허균은 가정의 학구적분위기와 리달의 직접적영향으로 당대에 이름있는 진보적인 작가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허균은 산문, 특히 소설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에서 사회적모순이 첨예화되고있던 17세기의 현실생활에 토대하여 적서차별의 가혹성과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농민봉기군의 투쟁을 진실하고 폭넓게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진보적소설문단을 대표하는 재능있는 작가로 인정받게 되였다.

허균은 자기의 창작과 저술활동을 통하여 모순된 봉건사회의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홍길동전》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17세기 조선의 진보적소설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23년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인가? 시상식 개최

2023년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및 경제학상 시상식이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였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러우스, 안 륄리에에게; 화학상은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에게; 생리의학상은 커털린 커리코와 드루 와이스먼; 경제학상은 미국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에게; 문학상은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에게 각각 수여되였다.

선정위원회 대표가 수상자의 업적을 각각 소개한 뒤 스웨덴 국왕 카를 16세 구스타프가 수상자에게 노벨상 증서와 메달,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각 항목의 노벨상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00만딸라)이다.

노벨재단 회장 아스트리드 서드베리 비딘은 축사에서 극화된 관점과 분렬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이 력사적 순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계몽을 믿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스웨덴 왕실 주요 구성원, 정계 지도자 등을 포함해 천여명이 참석했다.

12월 10일은 스웨덴의 화학자와 발명가 노벨의 서거 기념일로 매년 노벨상시상식은 모두 이날에 개최한다.

인류력사에 몇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는가

스웨리예와 인디아의 학자들이 밝힌데 의하면 B. C.3200년전부터 1964년까지 세계적으로 모두 1만 4 513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기간에 인류는 329년동안만 평화롭게 지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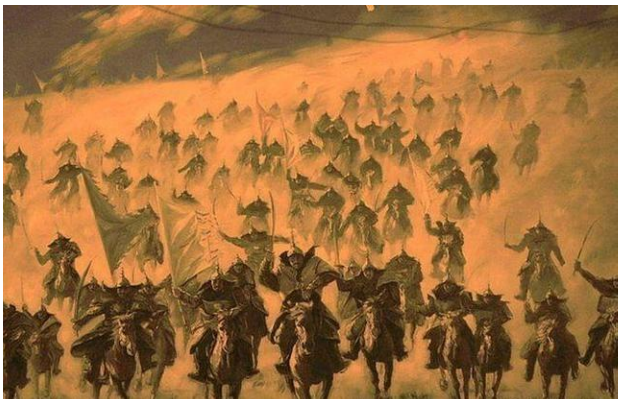
20세기에 일어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가 겪은 가장 참혹한 전쟁들이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시기 약 1 000만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끝에 목숨을 잃었으며 2 000만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들중 350만명이 불구자로 되였다.

희생된 평화적주민들은 미처 헤아릴수 없다. 이 전쟁은 기아와 빈궁을 몰아와 사망률을 높이고 출생률을 떨어뜨렸으며 그로 인한 주민의 감소는 12개 참전국에서만도 2 0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1939년-1945년)도 5 000만명이상의 사망자와 9 000만명의 부상자를 초래하였으며 5만개의 도시와 농촌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무수한 전쟁들은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웠다. 36억 4 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손실된 재부를 금으로 환산하면 너비가 75km, 두께가 10m인 금띠로 지구를 한바퀴 돌릴수 있다고 한다.

근대에 들어와 가장 호전적인 미국의 침략책동에 의해 인류는 더욱 엄혹한 전쟁위기를 겪



고있다.

지난해 이란의 프레스TV방송이 공개한 새로운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건국이후 2019년까지 근 400차의 전쟁에 개입하였다.

방송은 지난 20년간 미국이 다른 나라 령토에 하루평균 46발의 폭탄과 미싸일을 떨구었다고 폭로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도 240여년의 력사에서 불과 20년만 전쟁을 하지 않은 미국은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의 153개 지역에서 248차례의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것은 201차례로서 약 81%를 차지한다고 한다.

2001년이래 미국은 세계의 80여개 나라에서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전개함으로써 38만 7 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92만 9 000명의 사망자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약 3 800만명이 류랑자나 피난민으로 되게 하였다.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혁명시인 조기천

나라가 해방되여 이역땅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속에는 망국의 세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손목에 이끌려 고향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갔던 조기천도 있었다.

나라잃은 설음속에 부모들의 피땀에 절은 품삯으로 이역땅에서 사범대학을 나오고 조선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 그였다.

서정시 《두만강》으로 조국인민들과 인사를 나눈 조기천은 새 민주조선의 벅찬 현실을 목격하며 붓을 달렸다.

이 시 기 위 대 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그는 민족의 영웅만이, 불세출의 위인만이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었음을 심장으로 느끼며 격동의 붓을 안고 백두산으로 올랐다.

장백의 줄기마다에 새겨진피어린 자욱을 전하며 숭엄히 솟아있는 백두산을 우러르는 시인의 심장속에서는 용암이 솟구쳤다. 이 용암의 분출이 백두의 천출위인을 격조높이 노래하는 서사시의 머리글로 새겨졌고 서사시의 전모도 확고한 표상으로 굳어졌다.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으며 세상에 나온 그날로부터 오늘날에도 표현 하나 바램이 없이 구절 하나 처짐이 없이 격조높이 울려가



고있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이렇게 탄생했다.

새 조국건설시기 조기천은 서정시 《을밀대에서 부른 노래》, 서정서사시 《땅의 노래》를



비롯한 큰 형식의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하는 서정서사시 《네거리에서》, 련시《항쟁의 려수》 등 수많은 시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조기천은 어느 시인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호방하고창검과도 같이 예리하면서도 때로는 봄향기와 같이 훈훈한 서정세계를 펼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재능있는 시인이였다.

세련된 운률조성의 또 다른 개성으로 하여 그의 작품들은 그처럼 유명한 작품들로 될수 있었고 시 《휘파람》, 《문경고개》는 후날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의 가사로도 되였다. 육박의 창끝인양 고르고고른 그의 붓대는 이 땅에 몰아친 전쟁의 참화속에서 더욱 예리하게 벼려졌다.

불타는 산과 강, 마을과 고지를 지키면서 원쑤들을 쳐부시며 한목숨바쳐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 죽음을 모르는 이 나라 인민들의 헌신이 《조선의 어머니》, 《우리는 조선청년이다》와 《불타는 거리에서》,《조선은 싸운다》와 같은그의 피뛰는 한편한편의 시들에서 시인의 주정을 타고 격조높이 터쳐졌다.

그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몇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인민의 기억속에 남는 걸작들을 수많이 창작해낸 정열에 불타는 혁명시인이였다.

천삼리의 감풍경

강원도 안변군 천삼리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감고장이다.

천삼농장에서는 가을이면 벼가을하는 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풍경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감따는 풍경이다. 올해에는 례년에 없이 많은 감알들이 주렁졌는데 어떤 나무들에서는 한그루당 수백kg이나 되는 감을 따들였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올해에도 천삼농장에서 감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한다.

농가마다에 있는 감나무들에도 감알들이 주렁졌다.

이 고장에서 태를 묻고 살아오는 김영득로인의 집에서는 40여그루의 감나무에서 해마다 평균 2t이상의 감을 따들이군 하는데 올해에는 3t은 문제없을것같다고 집주인들은 말하였다.

감나무를 많이 심으니 생활이 윤택해져 좋고 마을의 풍치가 아름다와져 좋으며 사시절 과일을 떨구지 않고 먹을수 있어 좋다고 이곳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이 익혀먹는 것보다 영양가가 더 높을가?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서 먹는 것은 각자 장단점이 있다. 영양파괴의 관점에서 볼 때 생채소는 원래의 양양소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채소들은 생으로 먹기에 적합하지 않는데 례하면 강낭콩에는 식물세포렉틴이 포함되여있어 생으로 먹으면 중독되기 쉽다.

또한 록색 잎채소의 옥살산은 칼시움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어두운 채소의 카로틴은 쉽게 방출 및 흡수되지 않는데 이런 불량한 영향은 가열 및 조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채소를 익혀서 먹으면 세균을 죽이고 '농약잔류물'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런데 생으로 먹기 좋은 채소도 있다. 례를 들어 오이, 상추 등과 같이 수분함량이 높고 맛이 좋으며 항영양성분이 없는 채소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건강관리에 적합한 시간들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건강관리에 좋은 시간을 선정하였다.

- 식후 3분안에 이발을 닦는것이 좋다.

그것은 식사후 입안의 세균이 음식찌끼를 분해하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 산생되는 산성물질이 법랑질을 쉽게 부식시켜 이발이 손상될수 있기때문이다.

- 차를 마시는데 좋은 시간은 식사한 때로부터 한시간이후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식사후 인차 더운 차를 마시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그것은 차잎에 들어있는 탄닌산이 음식물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불용성철염을 형성할수 있기때문이다.

- 우유를 마시는데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이다.

중로년기의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우유를 마셔야 밤에 피의 칼시움함량이 낮아지는 상태를 개선하고 골격을 보호할수 있다.동시에 우유는 잠약과 같은 작용을 한다.

- 잠자기 전에 미안을 하는것이 좋다.

피부의 물질대사는 0시부터 6시까지 제일 왕성해진다.

때문에 잠자기 전에 간단한 미안을 하면 피부보호효과가 커지고 물질대사가 촉진되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리롭다.

- 목욕을 하는데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이다.

잠자기 전에 더운물로 목욕을 하면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느슨해지고 피순환이 빨라져 편안하게 잠들수 있다.

- 낮잠을 자는데 좋은 시간은 13시부터이다.



이때 인체의 감각능력은 낮아져 쉽게 잠들수 있다.

- 밤에는 22~23시가 잠자기에 좋은 시간이다.그것은 사람이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대체로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이며 잠자리에 들어 한시간반정도 지나야 깊은 잠상태에 들어가기때문이다.

- 몸단련에 좋은 시간은 저녁무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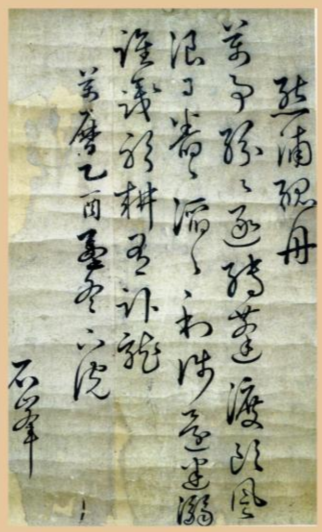
체력이 최대로 발휘되거나 인체의 적응능력이 높아지는 시간은 오후와 황혼이 깃들기 시작한 때이다.이때 사람의 감각기관들이 민감해지고 장기들의 호상작용이 활발해진다.특히 심장박동과 혈압이 비교적 안정되여 몸단련에 제일 적합하다.

- 공기갈이에 좋은 시간

환경보호전문가들의 측정에 의하면 매일 9~11시, 14~16시에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갈이를 하는것이 좋다고 한다.그것은 이 시간에 기온이 높아지고 대기층아래에 있던 유해기체가 점차 흩어지기때문이다.







한석봉의 글씨

천하명산 금강산을 자랑한 명필 양사언(1517 ~ 1584)

양사언은 리조 전반기에 활동한 명필가이며 시인이였다.
그가 천하명산 금강산에 얼마나 애정을 기울였는가 하는것은 금강산의 바위들에 명산을 노래한 시와 글을 수많이 새겨놓은것만봐도 잘알수있다.
양사언은 자를 응빙, 호를 봉래라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주부라는 벼슬을 지낸 양희수였는데 후처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비록 후처로 들어갔지만 양서언은 서자가 아니였다.
양사언은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라는 유명한 시조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사언은 글씨를 잘 쓴 서예가로 더욱 유명하였다. 리조시기 4대명필로 꼽는다면 양사언과 함께 안평대군 리용, 석봉한호, 추사 김정희 등을 들수있다.
양사언은 비록 시대적 및 세계적제한성으로 하여 인민을 위한 서예가로 활동하지 못하였으나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수있다는 진리와 노력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서예가였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 삼천리강산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감정을 글씨로써 력사에 남긴 명필가의 한사람이였다.

유 화

서양화의 기본형식이다.
기름에 갠 채색재료로 그린 그림.
경판지나 수축성이 적은 천우에 그린 그림으로서 비교적 오래 보존할수 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